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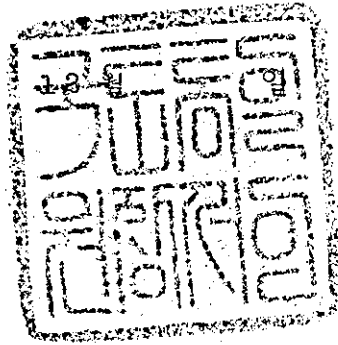
70년대의 남북한관계

—국제 세미나 결과 보고—

1972년 12월

국토통일원

이 보고서를 국토통일원 72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동 아 일 보 사
안 보 · 통 일 문 제 조 사 연 구 소
연 구 책 임 자 송 건 호



1. 基 調 演 說	1
2. 美国의 아시아政策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2
3. UNITED STATES POLICY IN EAST ASIA	3
4. 中共의 对韓半島政策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4
5. 朝鮮의 对韓半島政策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5
6. 中·蘇紛爭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6
7. 北韓의 对南姿勢	7

基 調 演 說

서울대학교文理大學
韓國國際政治學會長
教授 朴 奉 植

<基調演說>

70年代의 南・北韓關係

朴 奉 植

1. 序言 南・北關係의 國際環境

「지난 날의 南北關係는 南의 自由民主主義와 北의 共產主義라는 서로 극단적으로 異質的인 體制간의 差異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深化되는 相互 不信과 증오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南北의 對立關係는 6.25 戰爭으로 絶頂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러한 南北關係는 오늘날 美・中共關係改善과 美・소 共存體制의 深化에서 조성된 一般的인 緊張緩和의 무드속에서 새로운 關係를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새로히 모색되어야 할 南・北關係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잠깐 지난날의 일을 한두가지 도리켜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로 韓半島의 分断과 韓國戰爭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半島政治의 國際環境은 美・소의 對立關係를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 있다.

韓半島分断의 背景을 설명해 주는 가장 간결한 표현은 46年 美・소 共同委員會의 소련側代表 「슈티코프」가 美・소 共同委員會의 協議의 對象에서 信託統治에 反對하는 政黨 社會團體를 排除하자는 이유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韓國은 露西亞의 이웃이기 때문에 소련은 여기에 소련에게 忠誠스러운 (Loyal) 政府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다. 모스크瓦宣言에 反對하는 韓國人들은 소련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言辭를 쓰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政權을 장악한다면 韓國政府는 露西亞에

忠誠스럽지 못할 뿐만아니라 韓國政府官吏들은 韓國人들을 조직하여 소련에게 敵對的인 行爲을 하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美國은 韓半島全部가 소련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것은 먼저 美國의 排他的 영향하에 있는 日本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45 ~ 46 年당시에는 共産黨과 싸우는 蔣介石政府를 支援하기 위해서 中國大陸의 東海岸을 美國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韓半島全体를 소련에게 내어 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美·소는 당시의 그들의 戰略的 또는 政策的 立場으로 보아 韓半島를 他方에 넘겨 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리고 美·소에게 共히 有益하거나 또는 적어도 無害한 統一된 單一政府를 세울수 없었기 때문에 韓半島를 分割함으로써 各己의 利益을 保障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韓國戰爭의 境遇를 본다. 韓國戰爭은 日本이 美國의 軍事力化한데 대한 소련의 補償求得 行爲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周知되고 있는 바와같이 第二次大戰末 소련은 韓半島의 分斷 또는 共同占領만이 아니라 日本의 共同占領까지도 요구하고 있었다. 美國은 소련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日本列島를 非武裝化하는 政策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日本憲法第9條가 생기게 된 國際政治的 環境이었다고 하겠다.

이렇드시 韓半島의 分斷은 美·소의 戰略的對立關係의 固定狀況을 의미하였고 韓國戰爭은 美·소간 戰略的立場의 再調整試圖에서 발발하였다.

둘째로 中共의 韓國問題서의 干与다. 71 年 11 月 15 日 유엔總會에서 喬冠華中共代表는 美國이 49 年末과 50 年初까지도 中國의 內政에 干渉하지 않는다고 해오다가 오로지 韓國戰爭때문에 美國은

台滿을 占領하고 中共과 敵對關係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中共이 美國과 敵對關係로 對立하게 된것은 美·中間의 對立이 歷史的으로 불가피 했던것이 아니며 오히려 美·中兩國人은 傳統的으로 友好的이었는데 오로지 韓國戰爭때문에 敵對關係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韓國戰爭에서 美國과 對決하게 되었음은 本意가 아니었음을 示唆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態度는 이 喬冠華演說이나 72年3月27日 上海 共同聲明에서 韓國問題에 言及하면서 韓國에 있어서 유엔을 통한 美國의 政策을 비판함에 있어서도 中共스스로의 主張으로서가 아니라 北韓의 主張을 지지한다고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태서도 나타나고 있다.

中共은 本意였건 아니건 韓國戰爭에 介入하였고 소련은 뒤로 물러 앉아 韓國戰爭에서 形式的이나마 中立國의 입장을 자처하려 하였다. 따라서 韓國에서 中共은 美國과 對決하게 되었고 韓國戰爭을 계기로 美國의 極東政策은 中共을 反對하는 것을 核心으로 하여 展開되었다.

이렇게 보면 60年代末에 이르기 까지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環境은 美·소의 對立을 基底로 하는 美·中對立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물론 60年代初부터 中·소對立의 표면화와 美國의 越南에서의 積極政策은 韓半島에서 南·北韓關係를 긴장상태로 몰아 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中·소對立이 곧 美·中和解를 갖어 오지는 못하였으며 이른바 「美·소가 野合해서 反中陰謀」를 하는 期間이 근 10年이 계속되었다.

72年2月下旬 닉슨의 中共訪問은 실로 極東政治에 대한 革命的인 轉期였다. 美·中和解는 소련의 눈으로는 「美·中이 野合해서 反소陰謀」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美國은 公式적으로 中·소對立을 美國이 政策的으로 利用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美國이 中共을 反對하기 위해서 展開하는 政策環境속에서 살아 온 韓國과 極東諸國은 美國의 對中和解政策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政策路綫을 再調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事情은 北韓으로 하여금 對南政策을 修正케 하기도 한것 같다.

이상에서 본대로 韓半島의 分斷과 南地關係의 變化는 美·소·中 三大國의 關係變化를 그대로 反映하여 왔던 것이며 70年代의 南北關係도 역시 그럴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強大國政治의 明暗과 南·北交流

南·北韓의 對立은 韓半島에서의 美·소 및 美·中共의 對決을 의미하였다면 南·北韓交流의 展開는 韓半島를 포함하는 世界的인 美·소 및 美·中共의 共存을 背景으로 하고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의 交流도 對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強國政治의 規制의 範圍內에서 가능하며 強國政治의 테두리 안에서 交流가 許用되고 있다는 사실을 強調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歐洲에서는 이러한 強國政治作用이 비교적 솔직하게 나타나고 있다. 南·西獨交流 또는 共存은 強國政治의 明白한 干與와 基底위에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의 경우 強大國政治의 干與가 暗黙間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認識하기가 어렵다. 이경우 韓半島의 政治는 名分上 當事者의 自主에 맡겨지는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더욱 混

亂을 가져오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明示的으로 作用하는 歐洲에서 強國政治에 못지 않게 嚴格하며 냉혹할 것은 틀림 없다.

그러므로 東·西獨의 交流 또는 共存을 규정하는 強國政治의 內容을 분석하여 이를 南·北韓關係에 作用하는 強國政治의 성격에 참고 삼고자 한다.

72年 11月 8日 假調印된 東·西獨간의 基本條約 第3條는 「兩獨은 특히 現存하는 國境線이 현재나 미래에도 相互 침범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며 相對方의 領土保全을 全幅的으로 존중할것을 다짐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71年 5月 26日에 署名된 「交通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條約」序文에서 「兩獨逸國家를 獨立한 國家간에서 通常的으로 있는 正常的이고 善隣的인 關係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條約에 합의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表現은 기본적으로 70年 9月 12日에 체결된 獨·소不可侵條約의 規定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條約第1條後半은 「兩國은 歐洲에 있어서의 狀態正常化의 증진과 모든 歐洲國家간의 平和的關係의 發展을 위하여 노력할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努力은 이地域에 現存하는 實在의 狀態로 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第3條에서 다시 兩國은 「歐洲에서의 平和는 現存하는 國境들을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 만이 유지될수 있다는 認識을 같이 하여」「歐洲의 모든 나라의 領土保全을 現存國境에서 無制限으로 尊重할것을 兩國은 약속한다」고 하였다.

「歐洲의 모든 나라의 現存國境」이란 東·西獨의 分界를 말함은 물론이며 歐洲에서의 平和는 東·西獨의 分界가 명백히 유지됨으로서 보장된다는 것을 더 할 수 없이 명백히 규정한것이라 하겠다.

오늘 날 東·西獨간의 基本條約이 이것을 基底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 위에 東·西獨간 基本條約이 假調印되는 것과 時期를 같이하여 第二次大戰後 伯林과 獨逸占領에 참여한 英·仏·소·美四國은 東西獨의 關係正常화와 유엔에의 同時加入이 이루어 지더라도 全體로서의 獨逸에 의한 戰勝國으로서의 權利와 責任은 그대로 계속 존속하는 것이라고 公言하였다.

이 경우 戰勝國으로서의 權利란 獨逸地域의 情勢變化가 自國에게 不利하게 變하는 境況 여기에 對한 干涉權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四國의 責任은 東·西獨의 現存의 安定된 關係를 유지할 것과 各己 自國의 權利를 拋棄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유엔憲章 107 條는 健在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獨·소不可侵條約에서 보는 바와같이 東·西獨 分斷狀態의 지속이 歐洲平和의 基本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東·西獨의 共存은 歐洲平和의 條件이며 強國간의 利害는 東·西獨共存에서 保障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東·西獨分斷과 強國政治와의 關係狀況은 韓半島의 分斷과 南北韓關係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가 韓半島에 관해서는 獨逸의 경우와 같은 公式的인 合意나 政策의 표명은 없었다.

韓半島의 政治的分斷은 처음 부터 美·소간에 考慮된바 없다고 한다. 그리고 美·소는 韓半島의 分斷이 極東平和의 條件이라고 한 것이 없다. 오히려 韓國人의 統一을 위한 念願과 努力을 지지한다고 해 왔다. 韓國戰爭도 統一을 위한 努力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韓半島의 分斷이 이미 歷史的인 現實이 되었고 그 속에서 美·소 또는 美·中共의 勢力과 利害가 維持 또는 保障되어 왔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列強은 社会体制과 政治理念을 달리하는 南·北韓의 存在를 現實化하려는 努力은 역역히 보여지고 있으며 이것이 토대가 되어 南·北韓간에는 對立에서 交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美·소·中共이 南·北韓關係를 現實化 하려는 具體的인 努力을 公式的으로 표명된바는 없다. 그러나 暗黙間에 그들은 政策意思를 표시해 왔으며 南·北은 여기에 追隨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71年7月3日 당시 板門店 停戰委員會 유엔側 首席代表 로저스少將이 第317次板門店會談에서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案을 제기하면서 韓國人이 유엔軍측 首席代表가 됨으로서 板門店會談을 南北間政治會談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非武裝地帶의 平和的利用은 현재의 南·北關係의 安定없이는 不可能하며 현단계에서 南北韓政治會談이란 現狀維持를 위한 것 이외 다른 것이 있을 여지가 없다.

그리고 같은 71年7月19日 中共首相 周恩來는 北京을 방문한 美國人學者들과의 對談에서 美·中共關係正常化에 관해 말하면서 韓國에서 18年間이나 停戰이 계속되고 있으나 戰爭狀態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戰爭狀態를 종결시킬 條約에 관해 言及하였다.

여기서 周恩來의 言及은 休戰協定當事者간에 또는 南·北韓간에 平和條約 또는 關係正常化條約같은 것을 시사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같은 71年8月即「뉴욕 타임스」紙의 제임스 레스튼과의 會

見에서 周恩來는 南北韓간의 和解云云한 바 있음이 전해 지고 있다.

그리고 72年2月下旬 닉슨의 訪中期間과 매를 맞추어 北韓의 朴成哲이가 모스크로를 訪問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고 그때 소련新聞은 소련이 오래 전부터 北韓에 대해서 南北간에 平和條約같은 것을 示唆해 왔음을 지적한바 있는것으로 전한다.

이렇게 보면 南·北韓에 대해서는 獨逸에 대한 경우 처럼 強大國이 공동으로 그리고 明示的으로 分斷의 兩者關係의 基本을 정한바는 없다. 韓國에 관한 公式文書는 43年の 「카이로」宣言과 休戰條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獨逸의 경우 처럼 韓半島에 대한 公式的干涉이 없다고 하더라도 獨逸의 경우 못지 않게 強國의 利害對立은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獨逸에 대해서는 明示的으로 韓半島에 대해서는 暗黙간에 強大國政策은 실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코 強大國政策의 強度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獨逸에 대해 四大國의 干涉權이 유지되고 있는것은 第2次大戰과의 關係에서 이며 이점에서 韓半島-日本도 같은 처지임-나 獨逸은 다를 바 없다. 獨·소不可侵條約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유엔憲章107條는 아직 有効하다고 하겠다. 獨逸이 또는 東·西獨어는 쪽이 직접 二次大戰의 戰勝國에 위협적이 되어서는 (核武器를 갖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이 日本도 日本 스스로 美·소·中共에 직접 위협적이 될 수는 없다.

비슷한 論理가 南·北關係를 중심으로 美·소·中共에도 적용된다. 北韓은 단독으로나 소련 또는 中共을 背景으로 해서 美國 즉 南韓과 日本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南韓은

단독으로나 美^國이나 日本을 背景으로 해서 中共이나 소련 그리고 北韓에 위협적이어서는 않된다.

이러한 狀況의 原則이 72年3月下旬의 美·中和解와 72年5月下旬의 美·소共存關係의 體制化과정에서 合意되거나 前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韓半島에 대한 強大國의 暗黙間의 政策임이 분명하다. 暗黙間의 政策이라고 해서 明示的인 政策보다 덜 嚴格하다는 법은 없다.

흔히 獨逸의 統一은 첫째로 周辺國과 列強이 원치않고 둘째로 條約으로 分斷을 固定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어려우며 韓國의 統一은 보다 쉽다고 한다. 그러나 統一된 政治秩序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해 美·소·中간에 合意보기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리고 東·西獨과 같이 南·北韓이 각각 20余年에 걸친 歷史를 달리 해온 現實은 쉽게 해소할수 없기 때문에 統一이 어렵기는 獨逸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하겠다. 그리고 獨逸의 경우 기본적으로 美·소관계이나 韓半島의 경우 美·소·中의 관계이며 특히 中·소對立은 설혹 強大國이 韓半島統一을 위해 努力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統一이 獨逸의 그것보다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美·中和解와 美·소共存關係體制化를 위한 길에 방해가 되지 않고 同調하는 길은 南·北韓간의 交流의 길이 있을 뿐이다. 列強의 政策에 同調하기를 게을리 했던 東獨의 울보리히트가 71年5月3日 檀座에서 물러났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南·北韓交流는 美·소·美·中의 利解와 共存時代의 反映이며

南・北韓交流를 통해 현상태에서는 美・中・소는 자기의 既存利害가 가장 安定하게 保全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3. 南・北韓의 交流와 統一

우리가 統一이라고 말할때 5千萬民族이 그리고 三千里疆土가 모두 單一的인 政治制度하에서 그리고 하나의 經濟體制하에서 살게 되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政治制度의 면에서의 統一을 뜻한다. 그리고 民族各者의 입장에서 보면 韓半島全体가 民族의 單一的 生存圈 또는 生活圈으로 실현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統一은 현재 列強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설혹 우리가 이러한 統一을 熱望한다고 하더라도 統一된 韓半島政治에 대해 列強들이 合意할 수 없기 때문에 分斷된 상태를 그대로 두고 交流를 통해 統一의 가장 기초적인 念願을 실현케 하는것이 許用되고 있을뿐이다.

72年7月4日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共通된 念願」으로 이루어진 南北共同聲明은 祖國統一의 原則으로서 첫째로 外勢에 依存함이 없이 自主적으로 統一問題를 해결한다. 둘째 武力을 사용하지 않고 平和的方法을 택하며 세째로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는 超越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不信을 씻기 위해 相互 中傷 비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을 회복」하기 위하여 諸般交流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統一의 概念을 制度的으로는 單一政治體制를 수립하는 것을 말하고 個人의 生活面에서는 韓半島가 單一的 生活圈이 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할 때 7.4共同聲明의 內容은 制度的으로는 分斷을 초보적이 나마 制度化하는것을 예상하고 個人生活面에서의 統一

의 念願을 交流란 方式으로 實現시키는 方法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7.4 共同聲明은 分斷 4 半世紀에 있어서 分斷의 歷史的事實을 받아 드리고 이 위에서 交流를 통해 統一의 念願을 部分的으로나마 實現시켜 보자는 南·北韓의 최초의 合意文書이다.

그리고 72年 11月 4日의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2次會議 共同發表文과 南北調節委員會 構想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는 7.4 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상당히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 보면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의 人士들 간의 政治的 交流 南北간의 經濟 文化的 交流 그리고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위해 軍事的衝突을 방지하기로 규정하고 우선 放送戰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아러한 모든 合意는 7.4 共同聲明의 原則 즉 思想 理念 및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南은 北의 社會主義制度를 다른 社會制度로 변경시키려 하지 않으며 北은 南에 社會主義制度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보면 統一을 달성하기 위한 南北韓 交流는 分斷의 制度化를 先行시키고 있음을 본다. 南北이 交流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南北韓간에 최소한 安定된 關係가 필요하며 이 南北關係 安定化는 分斷의 制度化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統一을 위한 交流가 分斷의 制度化를 필요를 한다면 統一의 目標달성을 위해 모순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政治의 世界는 理論의 테두리에 구애받지 않으며 理論적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있는 現實을 否定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하튼 南·北韓은 「調節委員會」란 共同機構를 통하여 交流를

실시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70年代의 統一問題는 우선 交流問題로 代置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때 交流 그 자체가 統一의 前段階인가 하는 問題이다.

72年11月4日의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에 나타난 南北接觸의 內容을 보면 어디 까지나 交流이지 統一은 아니다. 交流를 통해 統一이 아닌 統合의 方法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統一을 向한 交流는 統合의 方法에 따라서 統一을 달성하거나 統一의 實質을 統合의 方法으로 얻을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調節委員會의 合意內容의 어느 곳에서도 統合의 단계를 예상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다만 아직 軍事的 衝突의 可能性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現단계 調節委員會의 任務인것 같으며 交流의 本格的인 實施를 위한 준비로서 70年代란 時代를 필요로 하는것 같다.

따라서 現단계에서는 統一은 交流를 위해 자리를 내 놓고 뒤에 물러 앉았다고 하겠다. 즉 統一을 向한 긴 路程에서 交流의 時代를 맞기 위한 준비의 단계이라고 하겠다.

이 時代에 있어서 南北關係의 특징은 軍事的對決을 후퇴시키고 피차 相對에 대한 조심스러운 觀察을 통해 信賴度를 測定하는 여러가지 作業이 交流라는 이름으로 실시 되는데 있다고 하겠다.

4. 南·北交流時代의 內外的狀況

交流時代의 內的狀況의 특징은 南北이 모두 交流의 主体로서 單一体性を 피차가 묵시적으로나 明示적으로 認定하는데 있다. 이것을 現狀의으로는 南北關係의 安定化라고 할것이며 制度的으로는

分斷의 制度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交流의 主体로서의 南北은 자기 自己의 体制를 他에 위협이 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강화하려할 것이며 南北의 統治者는 각각 最大限의 動員力을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南北간에서 피차 保障된 權利이며 동시에 他의 体制를 넘나보지 않기로 한 약속은 곧 自己体制를 지킬 權利와 責任을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南北統治者간의 權力狀況의 論理임은 말할것 없다. 이것이 南·北 住民의 政治的 倫理觀과는 別個의 것임은 두말 할것 없겠다. 交流의 時代에 交流主体로서의 主權者의 權力은 최대한으로 行使될것이 요청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各住民의 政治的 倫理觀과 一致하게 되면 理想的인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時代에고 간에 統治者의 權力의 論理와 住民의 政治的 期待간에는 항상 乖離가 있었다. 歷史는 바로 이 乖離의 연속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南北交流의 時代에는 위에서 지적한 데로 統治權의 최대한의 行使가 許用되고 있으며 또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交流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여러가지 事件들에서 자극된 一般 住民의 好奇心과 統一 期待實現의 可能性 暗示는 경우에 따라 統治權의 최대한의 行使를 許用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無限定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交流時代에 있어서 交流主体간의 關係가 어떻게 設定될 것인가가 문제다.

獨逸의 경우 앞에서 본대로 條約에 의해서 東·西獨의 基本關係와 接觸方法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경우 東·西獨에서는 없었던 「調節委員會」란 共同機構를 설립함으로써 이를 통해 南·北間의 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調節委員會」의 運營과 技能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실상 南·北間에 第三의 機關으로서 발전할 理論的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調節委員會가 第三의 機關과 같은 기능으로 擴大되는 경우 南·北間에는 東·西獨의 경우 처럼 條約締結의 方法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交流의 內容을 구체적으로 調節委員會가 결정함으로써 족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대로 南·北交流는 韓半島를 둘러싼 外部의 世界와 斷絶된 상태에서 展開되는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周圍은 南·北韓關係를 또는 交流의 內容을 形式化하고 文書化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周圍國들이 南北韓을 대하는 경우 行動의 根柢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調節委員會의 運營에도 불구하고 결국 南·北韓關係를 정하는 「基本條約」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 지는 경우 韓半島를 包含하는 極東地域에 日·소平和條約의 체결과 더불어 第二次大戰과 관련된 事態의 整理를 위한 國際會議같은 것이 열리게 될런지도 모른다. 獨·소不可侵條約이 東·西歐安保會議召集의 基底가 되었던 예를 보아 南·北基本關係를 規定할 文書의 성립은 極東중심의 強大國間에 새로운 共存關係 성립의 기저가 될 것이다.

美国의 아시아政策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建 国 大 学 校 教 授

政治学博士 趙 在 權

目 次

I. 머 릫 말	3
II. 对 匪 政 策 的 基 調	3
III. 对 匪 政 策 的 变 調	11
IV. 变 調 的 限 界 与 南 北 韓 関 係 的 展 望	16

美國의 아시아政策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趙 在 璣

I. 머 리 말

時間은 變化의 源泉이다. 1960年代에 있어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變化들이 近來에는 連續적으로 아시아地域에 일어나고 있다.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修正은 이러한 變化의 震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韓半島의 政治的 事情과 直接的인 關係를 갖고 있으며 韓半島의 將來에도 至大한 關係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美國의 아시아政策이 어떠한 基本的 目的을 追求하고 있으며,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어떠한 政策을 適用하고 온 것인가를 分析, 檢討할 必要를 느낀다.

本稿에서는 南北韓의 關係에 焦點을 맞추면서 美國의 對아시아 政策이 어떠한 패턴으로 發展해온 것인지를 檢討하고 그것이 變化되지 않을 수 없었던 要因은 무엇이었으며 그 變化의 限界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韓半島의 將來에 어떻게 作用할 것인가에 대하여 考察해 보기로 한다.

II. 對亞政策의 基調

終戰後 1960年代까지의 美國의 對亞政策을 한마디로 要略하면 封鎖政策(Containment Policy)이었다.

즉 제2차대전 후 팽창하던 공산주의 세력을 최대한으로 저지하려는 것이 基本的인 律調였다. 封鎖政策의 妥當性を 케난(George Kenn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美国의 어떠한 政策에 있어서도 그 主要한 要素는 소련의 평창적 傾向을 長期的으로 忍耐心있게 그러나 斷呼하고 細心하게 封鎖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美国은 소련의 政策的變化와 手法에 따라서 地理的 그리고 政治的 抛点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이것은 封鎖政策의 基本的性格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준다. 첫째 封鎖政策은 長期的인 것이라는 점이다. 즉 소련의 政策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一時的이고 無計劃的인 政策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伸縮性있는 政策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소련의 政策의 變動에 따라서 美国도 갓빨리 對抗策을 강구하되 그것을 一定한 지역에서만 局限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全地球에 걸쳐서 생각하고 展開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이 政策의 가장 基本的인 性格은 被動的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련이 언제나 먼저 행동하는 것이 前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政策은 基本的으로 能動的인 것이 아니다. 만약 外交의 生命의 하나를 이니시아티브(initiative)에 있다고 한다면 이 政策은 그것을 欠如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네째 封鎖政策은 하나의 基本的條件을 前提하고 있다. 그것은 美·소兩國은 相容할 수 없는 理念과 政治的 體制로서 敵對的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이 敵對的關係를 冷戰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發展하는 過程속에서 形成된 體制를 兩極體制라고 呼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體制 -美·소를 각각 하나의 勢力核으로 하여 두개의 세력권으로 分化된 國際政治的 構造-는 그후 계속 國際社會의 基本的 關係를 規制하였는데 1958年頃부터 崩壞되기 시작하여 1960年代에는 그 分解作用이 最終的 段階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注目

해야 할 것은 이 敵對的關係가 招來한 것 중의 하나가 美國의 介入政策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地點에서도 美國은 革命運動을 警戒하게 되었고 必要한 때에는 軍事的 介入을 不辭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政策의 標本的인 것의 하나가 美國의 越南戰介入이었다.

모오겐토 (Hans J. Morgenthau) 교수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美國人들은 모든 過激한 革命運動에 介入하는 傾向이 있다. 美國人들은 그러한 運動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利用되고 말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美國의 介入政策의 動機를 美國人의 心理的 傾向에 求하는 데는 큰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1969년 이후 1971년까지 高潮되었던 美國人들의 反戰運動을 說明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美國政府가 公式的으로 發表한 越南戰 介入의 理由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 즉 아시아에 있어서의 모든 民族의 自治 또는 民主主義政治를 支援하기 위한 것이 美國의 介入目的이라는 것이다. (3)

우리가 여기에서 注目할 것은 美國의 政策을 正當化하기 위해 使用되고 있는 用語는 一般的이고 漠然한 것이라는 점이다. 왜 이러한 概念을 使用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그 理由는 첫째 소련이 내세우는 공산주의 革命에 對항하기 위해서는 理念的인 鬪爭이 不可避했기 때문이다.

理念은 元來 一般的인 性格을 띄게 마련이고 따라서 漠然한 要素를

內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한 概念에 의하여 正當化할 때 国内的 및 國際的 支持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공산주의에 對抗할만한 理念을 提示하지 않고서는 大義名分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名分을 理念에서 찾기 때문에 생겨나는 逆作用(dysfunction)이 있다. 이 逆作用은 美國의 對匪政策의 基本的 目的이 무엇인가를 흐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美國이 아시아에서 戰爭을 무릅쓰고라도 達成하고자 말겠다고 懇求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明確性이 奪取된다는 것이다. 가령 앞서 引用한 케난의 說明이나 모오겐토의 理論에서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根本的 目的을 찾는다면 前者는 對소封鎖政策이며 後者는 反共主義로서 要略되고 말 것이다. 政府의 公式的인 主張은 民主主義의 守護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提起하여야 할 問題는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真正한 目的이 果然 反共에 있는가? 萬若 그렇다면 1972年2月以後에 일어난 一連의 事態는 어떻게 說明되어야 할 것인가? 닉슨美大統領의 北京訪問과 모스크코訪問등은 美國이 對아시아政策의 基本的 目的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는 그 目的에는 變함이 없지만 다만 그 追求方法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느程度의 教育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닉슨美大統領의 對아시아對策이 美國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基本的 目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美國이 이 地域에 있어서 追求하고 있는 基本的 目的은 무엇인가?

그것을 簡單하게 말한다면 아시아가 어느 一國家 또는 一國家群에 의하여 支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있어서 複數의 國家 또는 國家群이 서로 對立하며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 美國은 때로는 軍事的 또는 經濟的 援助를 하며 때로는 軍事的行動을 取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勢力均衡을 위하여 美國은 日本과의 太平洋戰爭을 치루었고 中共과 韓國戰爭에서 맞싸웠으며 越南戰에도 介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美國이 戰爭으로서라도 守護 또는 貫徹하고자하는 基本的 目的은 反共 그 自体가 아니며 또한 民主主義 그 自体도 아님을 明白하게 한다.

이러한 說明은 닉슨美大統領의 中共 및 소련에 대한 訪問이 美國의 아시아政策의 基本的 目的을 變更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한다. 그렇다면 왜 美國은 그의 基本的 目的이 그렇다는 것을 表明하지 않았는가? 그 理由는 다른 地域에 대한 美國의 基本的 目的을 比較하여 考察할 때 더 鮮明하게 될 것이다. 美國의 對유럽정책에 대하여는 일찍이 와싱턴大統領以來 傳承되어온 行動原則이 있다. 그것은 美國이 유럽의 政治的對立이나 紛糾에 介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었다. 이것은 美國의 國民學校兒童들도 익혀 알고있는 일이다. 다만 유럽全體가 一國家 또는 一國家群에 의하여 支配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곧 美國의 安全에 대한 至大한 危險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情勢에서는 孤立主義를 버리고 유럽의 政局에 介入하였던 것이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大陸의 경우에도 역시 뚜렷한 行動原則이 있다.

그것은 이른바 몬로 닥트린 (Monroe Doctrine)이다. 이것은
要컨대 라틴 아메리카대륙에 있어서는 美國이 独占的優越權을 掌握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 目的을 위하여 武力的 行動을 取하는
것은 當然視되어왔다. 對유럽정책이 對라틴 아메리카정책과 다른
점은 前者는 消極的인데 대하여 後者는 積極的이라는 것이다. 그
런데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에는 傳承되어오는 뚜렷한 行動原則이 없
었다. 이것은 美國外交史上에 對아시아政策의 行動指針이 全혀 없
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門戶開放政策 (Open Door
Policy), 또는 스티imson 닥트린 (Stimson Doctrine), 루즈벨
트美大統領의 隔離政策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一時的
인 미봉책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一定하게 뚜렷한 行動指針이
傳承되기 어려웠고 그 結果 一般大衆의 아시아에 대한 關心도 不
足하였다. (1938년까지도 美國의 아시아에서의 利益이 果然 무
엇인가 分明치 않았다. 이 점에 관하여는 곧 言及할 것이다).
그러므로 行政府에 따라서 基本的 目的에 대한 認識도 달랐고 說
明도 달랐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政策樹立家들이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勢力均衡을 確保하는데 있다고
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때로는 政策樹立家自身들이 실제에 있
어서는 그것을 追求하면서도 名分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概念을
導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万若 여기에서 우리가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底流에 흐르는 것
을 (닉슨 닥트린 以前까지의) 한번 整理해 보는 것도 우리의 理論
展開를 위해 必要하겠다. 이 作業을 效果的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1937년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底流에 흐르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戰前과 戰後에 共通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分析해 보면 우리는 하나의 패턴 (Pattern) 을 定立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로서 1937년 10월 5일에 행한 루즈벨트대통령의 隔離演說 (Quarantine Speech) 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그는 國際的인 秩序를 破壞하는 國家는 마땅히 國際社會에서 隔離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強調하였다. 즉

世界人口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平和, 自由 및 安全이 殘余의 10%의 人口에 의하여 危脅받고 있다. 그들은 국제적 秩序와 法規를 破壞하려고 버르고 있다…… 平和를 守護하기 위한 積極的인 努力이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5)

역시 내세우고있는 것은 曖昧한 概念이다. 平和를 위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當時의 힐 (Hull) 國務長官이 行한 上院의 質疑에 대한 答辯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는 美國人の 貿易과 其他利害關係에 대하여 說明하고난 뒤에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즉

加一層 폭 넓고 또한 보다 根本的인 美國의 利益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秩序있는 節次 (orderly processes) 가 維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利益은 重要性에 있어서 美國의 對中貿易이나 對中投資 보다 先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中國에 滯在하고있는 美國市民의 權益을 保護하는 問題 보다도 더 先行하는 것입니다. (6)

이것은 美國이 太平洋戰爭 直前 까지도 무엇 때문에 戰爭에 呼
訴하지 않으면 안되느냐에 관하여 平和를 위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目的設定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曖昧하다는 것이다. 積極적인 것도 아니고
消極적인 것도 아니며 때로는 兩者 모두 일 수도 있었던 美國의
對아시아 政策의 曖昧性은 戰前부터 繼承되어온 것임을 알 수 있
다.⁽⁷⁾

曖昧하다는 것은 計劃性과는 兩立되지 못하는 屬性이다. 따라서
美國의 對아시아 政策은 無計劃의이며 一時的인 미봉책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1931年 이른바 滿洲事變
과 關聯하여 宣布된 스티븐 닥트린의 경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門戶開放政策은 積極적인 側面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
실에 있어서는 通商上의 利益으로 달미암아 戰爭을 무릅쓰는 일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以上에서의 說明을 通하여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脈絡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첫째 政策의 基本的 目的이 恒常 뚜렷하게 表示되지 못했다.

둘째 이러한 曖昧性은 커뮤니케이션갭(Communication Gap)를
招來하게 되고 政府가 "本意아니게 國民을 속이는 不幸한 結果를
가져왔으며 美國民들은 政府가 마침내 必要하다고 생각하여 取扱한
行動에 대하여 呼應할만한 準備가 되어있지 못한 경우를 자주 빚
어내었다."⁽⁸⁾

셋째 無計劃의이고 一時的 被動的인 것이었다. 美國의 對아시아
政策은 언제나 特定한 事態가 發生하고 난뒤에 그것을 取拾하려는

傾向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外交上의 이니시아 티브를 欠如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네째 美國의 對亞政策은 現實主義的인 것이었다기 보다는 理想主義的인 것이었다. 平和라든지 民主主義 또는 反共主義를 위하여 戰爭에 參加한다는 식으로 說明되었다. 특히 제 2차 대전후에는 現實을 廢外視하고 美國의 富와 軍事力으로써 모든 것은 解決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패턴에 대하여 正面으로 修正을 加하고 새로운 活路를 開拓하려고 努力한 것이 닉슨 닥트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美國의 對亞政策의 傳統的 패턴과 그 基本的 目的을 把握한 우리들은 이제 닉슨美大統領의 對亞政策을 檢討하고 그것이 南北韓의 關係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Ⅲ. 對亞政策의 變調

越南戰爭의 長期化는 美國내에서의 反戰運動을 激化시켰다. 그것은 美國歷史上 南北戰爭以後 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운 政治的 危機를 助成하게 되었다. 1969년 부터 1970년까지의 約 2년간에 反戰運動은 最高潮에 달했다.

이것은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을 再檢討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968년의 選舉에서 越南戰爭은 次期大統領選舉(1972)에 있어서의 이슈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說破했던 닉슨대통령은 越南戰의 終熄을 위하여 最善을 다하려고 努力하였다. 그 努力 중의 하나는 越南에서의 地上軍을 撤收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越南軍의 防衛能力을 養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劑期的

인 것은 이러한 努力의 方向을 提示한 이른바 닉슨 닥트린의 發表였다(1969). 닉슨대 통령은 对아시아政策의 行動指針으로서 世까지의 原則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美國은 모든 條約上의 義務를 履行할 것이다.

둘째 美國은 어떤 國家의 存立이 美國의 安定을 위하여 必要不可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國家의 自由가 어떠한 核保有國에 의하여 威脅을 받을 때는 그 國家를 擁護할 것이다. 셋째 万若 다른 方式에 의한 侵略이 敢行될 경우에는 美國은 條約上의 義務에 따른 要請을 받았을 때 軍事的 및 經濟的援助를 提供할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直接的으로 威脅을 받고있는 國家가 防衛에 必要한 人力을 供給할 제1차적 책임을 擔當할 것을 期待한다.⁽⁹⁾

제1項에 대해서는 說明이 必要 없을 것이다. 條約上의 義務를 誠實히 履行한다는 것은 닉슨 닥트린에서 宣明하지 않아도 좋을만큼 自명한 것이다. 그러나 제2항의 內容은 상당히 注目할 必要가 있다. 어떤 國家가 核保有國에 의하여 威脅을 받을 때 過去에 있어서는 그 國家가 反共的인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나 保護한다는 것이 美國의 封鎖政策의 基本的 內容이었다. 그런데 닉슨 닥트린에 있어서는 無條件的인 것이 아니라 美國이 判斷해서 美國의 安全에 必要不可欠하게 重大하다고 생각된다면 (if a nuclear power threatens the freedom of a nation whose survival we consider vital to our security) 美國은 그러한 國家에 대하여 擁護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美國의 友好國에 대하여 美國이 行動의 自由를 留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留保를 두는 目的은 美國의 友邦이 美國의 援助를 기대하고 어떠한 種類의 軍事的紛争을 誘發하는 것을 未然에 防止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美國의 安全에 必要不可欠한지의 與否는 條約上의 義務를 履行한다는 것과 어떠한 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령 美國과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고 있는 國家가 核保有國에 의하여 威脅을 받을 때도 美國은 그 國家의 存立이 自國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不可欠(vital)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美國은 條約上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誤解를 사지 않기 위하여 挿入한 것이 第1項의 規定이라고 해석된다.

세째項의 內容은 美國이 스스로의 能力에 限界가 있음을 自認하게 된 것과 關聯된다. 이러한 反省의 直接的 動機가 된것은 勿論 越南戰爭이다. 美國이 越南戰爭에서 얼마만한 犧牲을 치루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美國의 上院外交分科委員會는 美國議會圖書館의 附屬研究室에 越南에서의 美國의 負擔을 調査·報告하도록 稟請한 일이 있었는데 1971년 7월 11일 36 페이지의 報告書가 發表되었다.

이에 의하면 美國의 負擔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1965년 부터 1971년 6월까지 약 1,200억 달러의 戰費가 支出되었다. (2) 1971년 3월 現在 越南戰爭에서의 美國의 死傷者數는 약 35萬名이었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치룬 美國의 人命被害보다 많은 것이었으며 韓國戰爭의 그것의 약 2배가 된다. (3) 美國의 航空機의 被害는 7,602대에 달하였고 그 價格은 약 57억달러에 해당한다. (4) 航空機에 의하여 投下된 爆彈의 총톤수는 1,140만톤이었으며 그것은 제2차대전중에 사용된 총톤수의 2배에 달한다. (10) 이러한 莫大한 희생은 美國으로 하여금 從前과 같은 直接介人을 통한 封鎖政策을 修正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政策을 修正하게 만든것에는 다른 原因도 있었다. 그것 중에는 反戰 運動과 鬱氣沈滯를 同伴한 인프레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中·소의 對立과 反目이 있다. 특히 中共과 소련의 對立은 美國의 對아시아 政策의 基本的 目的을 成就하는데 새로운 有利한 情勢를 助成 하였다. 즉 中共에 대한 소련의 견제는 一國에 의하여 아시아의 支配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美國의 基本目的을 위하여 크게 도움되는 要因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日本의 經濟力은 점차 政治力으로서 轉換되었고 未久에 軍事的力量으로서도 새로운 勢力核을 形成할 可能性을 充分히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11)

다시 말하면 中·소가 굳게 結束되고 있었던 兩極體制下의 아시아情勢와 1969年 現在의 아시아情勢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美國, 소련, 中共, 日本의 四極體制로 發展할 充分한 可能性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基本的目的(政治的側面)에 알맞는 情勢發展이었다.

이리하여 美國이 이러한 客觀的 情勢를 冷徹하게 把握하고 또한 從前의 政策을 再評價할 時機가 到來하였던 것이다. 닉슨 닥트린은 이러한 의미에서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轉換點을 形成한다. 이에 대하여 中共이나 소련은 어떻게 反應하였는가? 中共의 境遇는 이른바 卓球外交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72年 2月の 닉슨대통령의 招請外交로 까지 發展하였다. 한편 소련의 경우도 닉슨 대통령을 5월에 모스크바로 招請하는 것으로 表示되었고 戰略武器制限에 關한 條約을 비롯하여 宇宙開拓에 있어서의 相互協力을 約束하는 條約, 그리고 醫學技術交換에 關한 條約등을 체결함으로써 誇示되었다.

이러한 닉슨의 訪問外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그것은 美國이 外交의 生命이라고 할 수 있는 所謂 이니셔티브를 掌握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從前의 封鎖政策은 언제나 相對方의 特定한 行動을 前提로 하는 政策이었음에 反하여 닉슨의 訪問外交는 積極적으로 機先을 制하려는 樣相을 띠게 되었다. 닉슨의 訪問外交는 消極적이고 被動的이었던 1960年代까지의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을 積極적이고 能動的인 패턴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政策的패턴의 轉換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注目할 必要가 있다. 둘째 그것은 아시아에 直接的인 利害關係를 가진 勢力이 4개 있다는 것을 示唆해 준다. 그리고 美國은 餘他の 세가지 勢力과 直接的으로 交涉할 것을 明示한 것이다. 그것은 從前까지의 敵對的態度에서 對話의 態勢로 姿勢를 바꾸었다는 것과 軍艦外交 (Battleship Diplomacy)의 終幕을 의미한다.

세째 그것은 또한 美國의 對아시아政策과 對中政策이 不可分の 關係에 있음을 뜻한다. 아니 오히려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中心的 課題는 對中關係라고 말하는 것이 더 正確한 表現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새로운 한가지 點을 暗示해준다. 즉 만약 어느時期에 가서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中心的 課題가 中國이 아닌 다른 國家(가령 日本)와의 關係로 바뀌어지는 時代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韓半島에서의 情勢에 새로운 段階를 劃하게 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네째 그것은 世界政治의 中心的 內容이 變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從前 까지 아시아는 世界政治의 客體的 地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將次에 있어서는 아시아의 地位가 主体的인 것으로 發展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象徵하는 것은 이른바 「아시아인의 아시아」라는 스토간이다. 歷史의 어느 時点에서 이러한 主体的 役割을 主張할 뿐만 아니라 實제적으로 担当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時代 즉 東西의 文明이 太平洋을 사이에 두고 對等한 立場에서 서로의 理念的 制度的 差異를 넘어서 平和的으로 共存하고 競爭하는 時代가 될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太平洋時代라고 불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닉슨 닥트린은 太平洋時代의 序曲이라고 하여도 無妨할 것 같다.

IV. 變調의 限界와 南北韓關係의 展望

닉슨대통령의 北京訪問이 發表되었을때 美國內의 一部層에서 果然 大統領이 直接中共을 訪問할 必要까지 있는 것인가하는 反論도 있었다. 이러한 論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닉슨대통령의 對아시아 政策에도 하나의 限界가 있을 것임을 뜻한다. 사실 美國內에는 1971年까지만 하여도 越南에서의 軍事的 勝利를 達成해야한다고 主張하는 團體도 있었다.

이러한 右派勢力은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에 하나의 制動機的 役割을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생각할 점의 하나는 닉슨대통령이 反共運動의 旗手中의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가령 越南戰이 終熄되고 아시아에 있어서의 美國의 頭痛꺼리가 없어지면 美國의 對中接近의 速度는 從前과 比較하여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앞으로 4년간의 執權이 確定된 이 時點에 있어서 닉슨대통령은 右派勢力의 主張(軍事的 勝利와는 別個)에 대하여 多少 傾聽할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大勢를 말하면 中共과의 國交 正常化(大使의 交換等)를 推進할 것이며 美·中貿易도 增加할 것이다. 따라서 닉슨대통령에 의한 變調는 오히려 正調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趨勢를 前提로 한다면 南北韓의 關係에도 別다른 變化는 없을 것이며 現在進行되고 있는 對話는 繼續될 것이다. 美國과 中共의 政策이 平和的 手段에 의하여 相互間의 問題를 解決하려는 方向을 바꾸지 않는 限, 그리고 소련과 日本등이 역시 平和共存 政策을 追求하는 限 南北韓의 關係는 점차 폭을 넓히게 될 것이다. 周圍에 있는 勢力核들이 제 2 차대전 전이나 그 即後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戰爭을 國家的 目的을 追求하는 手段으로 삼지 않는 이러한 時期를 歷史的인 觀點에서 말하면 <平和의 波長>이라 할 수도 있다. 南北韓의 關係는 이러한 平和의 물결을 背景으로 하여 始作된 것이며 周圍의 勢力核에 대한 感度(sensitivity)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 感度は 時間이 經過하는데 따라 어느 程度까지는 앞으로 減少되는 傾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勢力核에 대한 南北韓의 自主性의 增大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만약 美國의 政策이 孤立主義的 原則에 의하여 支配되는 날이 온다면 (가령 1977年以後), 그리고 만약 日本에 民族主義勢力이 抬頭하게 되어 美·日間의 關係가 지금과 같이 圓滿하게는 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南北韓의 關係는 美, 日, 中, 소의 對立 關係에 의하여 그만큼 獨自的進路를 取摺할 수 있는 可能性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4角關係는 다음과 같이 變할 可能性도 內包하고 있다. 즉 만약 中共內에 政變이 發生하여 從前까지의 民族主義的路線을 버리고 中·소의 關係를 改善하려는 이른바 國際派 (林彪事件은 이러한 可能性이 潛在하고 있음을 示唆했다)가 執權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美·日·中共+소련이란 3角關係를 形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條件下에서는 南北韓의 關係는 圓滿하게 進行되기 어려울 것이다. 가령 現在와 같이 美國 日本의 同盟關係를 한點으로 하고 中共과 소련을 각각 다른 한點으로 하는 情勢를 3角형 A라고 부른다면 美國, 日本을 각각 다른 한點으로 하고 中·소樞軸을 제3의 點으로 하는 3角關係를 3角형 B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美·日·中·소가 각각 獨自的으로 한 點을 形成하는 4角關係를 R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展望이 可能할 것이다.⁽¹³⁾ 즉 (1)南北韓關係는 A狀態에서 低調될 것이며 (2)B狀態에서 中間, 그리고 (3)R狀況에서 最善이 될 것이다. A狀態가 最惡의 경우로 될 것이라 함은 中·소가 世界 共產革命路線에 步調를 같이 할 때는 北韓의 政策도 굳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平和의 波長도 A, B, R 등의 狀況에 따라 變動될 可能性이 많다. A 狀態는 어쩌면 紛爭의 情勢의 始發點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平和의 波長>은 <戰爭의 波長>에 의하여 對替될 수 있을 것이다. (14) 한편 B의 狀態는 繼續 <平和의 波長>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R 狀態 또는 다른 제 4의 型態 (가령 日本과 中共의 提携등)로 發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境遇에 있어서도 南北韓의 關係는 A 狀態와 類似한 것 以上の 것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이나 美國이 日本과 中國의 結合에 대하여 非常한 抵抗을 試圖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考察은 제 5의 型態 즉 日本·中共 對 美國·소련의 對立관계도 있을 수 있음을 示唆해 준다. 이 경우 아시아의 情勢는 緊張되고말 것이다. (想像할 수 있는 其他의 結合型態에 있어서도 同一할 것이다.)

以上에서의 論議를 通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南北韓의 關係와 아시아의 勢力核과의 關係는 函數的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韓半島에서의 平和的 零圓氣가 成熟되어 韓國의 平和的 統一이 達成된다면 그것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平和를 유지·發展시키는 逆作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그리고 19세기末로 부터 20세기 初까지에 두개의 戰爭이 韓半島에 대한 主導權을 圍繞하고 發生하였다는 史實을 생각할 때 다시는 이른바 強大國의 角逐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民族은 最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은 우리의 民

族史에서 볼 때 民族의 中興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國際政
治史에서 보면 平和의 章을 의미할 것이며 世界史의 觀点에서 보
면 하나의 새로운 時代 즉 太平洋時代⁽¹⁵⁾에 우리民族이 能動的으
로 参与하는 機會가 될 것이다.

< 脚註 >

- (1) George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XXV (July, 1947), PP. 575, 576.
- (2) Hans J. Morgenthau, "To Intervene or Not to Intervene," Foreign Affairs (April, 1967), P. 433.
- (3) Bernard K. Gordon, Toward Disengagement in Asia: A Strategy for American Foreign Polic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9), P. 46.
- (4) 上同, P.41
- (5) Department of State, Press Releases, Oct. 9, 1937, PP. 278 - 279.
- (6) 上同, Jan. 15, 1938, PP. 100 - 105.
- (7) William D. Johnstone, The United States and Japan's New 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1), P. 345. 존스톤은 1941년에 美國民과 美國政府가 "무엇이 極東에 있어서의 美國의 真正한 利益인가에 대하여 合意하지 못했다"고 指摘하고 있다.
- (8) Bernard K. Gordon, Toward Disengagement in Asia, P. 46.
- (9)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Nixon; Containing the Public Messages, Speeches, and Statements of the President 1969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P. 905 - 906.
- (10) 1971年 CQ ALMANAC, P.407 越南軍의 人命被害는 47만 2,000명 (死傷者), 그리고 越盟軍의 人命被害 (死亡者)는 71만 4,980명이라고 한다.

- (11) A. Doak Barnett, A New U.S. Policy Toward Chin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1), pp. 37 - 38.
- (12) 닉슨대통령이 行한 直接交渉에 관해서는 자칫잘못하면 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라는 慎重論도 있었다. A.M. Halpern, "Types of China Policy," A. M. Halpern, ed., Policies Toward China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5), P. 493.
- (13) 日本이 名実 共히 하나의 独自の 勢力核을 形成하는 때는 核武器까지도 保有하는 段階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 以前이라 할지라도 日本의 莫大한 經濟力과 그것을 뒷받침으로 하는 政治力은 在來式武器에 依存한다는 欠陷은 있지만 하나의 勢力核을 形成할 수 있을 것이다.
- (14) 勿論 現實에 있어서는 이러한 A. B. R 등 세가지 狀態의 어느 것에도 꼭 適合하지는 않는 A'. B'. 또는 R' 등의 狀態도 存在할 수 있을 것이다.
- (15) 이 時代는 하나의 宣戰布告있는 戰爭과 두개의 宣戰布告없는 戰爭 끝에 開幕되는 時代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先進國, 後進國 그리고 發展途上의 國家들이 並存하여 協力 또는 競争할 것이며 現代의 매스컴과 젯트機를 비롯한 交通手段에 의하여 地中海時代, 大西洋時代와는 格差가 있는 時代를 이룩할 것이다.

UNITED STATES POLICY IN EAST ASIA

Morton S. Smith

Director, USIS-Korea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UNITED STATES POLICY IN EAST ASIA

Morton S. Smith
Director, USIS-Korea

On July 5, 1972, the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meeting the press in Washington, said of the joint announcement of high-level South-North Korean contacts the day before:

"We welcome the joint announcement on South-North relations concerning meetings which have taken place between representatives of the two sides, and agreement on principles for future contacts. This ... is most encouraging, and could have a salutary impact on prospects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has long supported the constructive efforts of Republic of Korea leaders to 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statement of satisfaction over the course of bilateral contacts on the Korean peninsula was easily predictable for anyone who has followed even casually the recent course of U.S. policy in East Asia.

Under the short-hand formula "Nixon Doctrine," many Asian journalists -- and some Americans as well -- have described

what they thought was an American turning away from involvement in Asian affairs. That conception of the Nixon Doctrine is a misleading one, and ignores not only American policy statements but American behavior as well.

But to fully fit American reaction to Korean developments into a policy context, one must go beyond the Nixon Doctrine to the global directions U.S. foreign policy has taken in the past several years. The overwhelming support that policy received from the American public in our presidential election last month is certain to bring about a continuation of that policy in the next four years. Therefore, a brief re-examination of it serves not only to refresh our recollection of recent history but also serves as a guidepost to the future.

Secretary of State Rogers, in an address before the Los Angeles World Affairs Council in October, summarized what he felt were the major new departures in foreign affairs during the first Nixon administratio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travelled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guest of a government with which we have never had diplomatic relations.

"An American president has visited Moscow for the first time.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have reached agreements on nuclear arms which go to the heart of our strategic rivalry. And ... the United States settled its lend lease debt with the Soviet Union and entered into a broad new trade agreement.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with United States participation, to ensure that Berlin will no longer be a chronic source of East-West tension in Central Europe.

"In the Middle East, a United States-initiated cease-fire is now in its 27th month.

"Important steps have been taken -- at U.S. initiative -- to make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more equitable."

The common thread that runs through these diverse major policy matters has been an effort, in President Nixon's words, to replace situations of confrontation with productive negotiations.

As Secretary Rogers has noted, in the past four years the U.S. Government has moved from a policy of containing its adversaries to one of engaging them -- an engagement in talks over the major issues that has made the world so dangerous a place to live in, over the past 25 years.

This movement in U.S. policy may be considered the natural outgrowth of policies pursued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by Democratic and Republican administrations alike. During most of this period, the effort was made to construct a world security system which would dissuade and frustrate expansionist policies on the part of our adversari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it meant major economic and security assistance programs to help nations devastated by the world war -- in the case of Japan and our European allies -- or those emerging into the ranks of the developed nations while trying to cope with threats to their security,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out the vast area encompassed by the security system that emerged after World War II, weakness has been replaced by strength.

The nations of Western Europe, building towards a unity that has always been supported by American policy-makers, have achieved economic breakthroughs that are changing the face of the continent. The Japanese economic miracle needs no explanation before this audience, and your own spectacular advances are cited as an example to nations less fortunate than our own. In other corners of Asia as well -- Taiwan, Thailand, Singapore, Malaysia, Indonesia -- economic progress underlies a self-confidence and self-reliance that was not easily imaginable twenty years ago.

In testifying before hearings held last summer before the 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policy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U. Alexis Johnson, Under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summarized the accomplishments of the post-war policy in a statement that I shall paraphrase:

Our bitterest enemies of three decades ago are now among our closest friends.

The dreadful prospect of another world war seems now more remote than at any time since the mid-1940s.

More than 60 new nations came into independent existence during a largely peaceful liquidation of 400 years of colonial history.

A new sense of the interdependence of nations has grown in only a few decades from being a bitterly disputed premise, to a commonplace statement of the obvious.

The threat of atomic holocaust has been contained, and the atomic threat to mankind has been lessened.

Economic recovery has been spectacular, and record levels of prosperity have been attained in large parts of the world.

And an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has been developed which has resulted in a level of trade between nations on a scale unprecedented in history.

It is, as Mr. Johnson noted, fashionable in many quarters to question American motives in leading the non-Communist world to recovery during this period. He was, and I am as well, content to simply note that Winston Churchill, not sentimental in judging the behavior of nations, characterized the U.S. effort in the post-war years as "the most unsordid act in history."

Implicit in the theory of containment was the concept that strong bonds of cooperation between America and her allies would not only prevent conflict from arising, but could also lead to changed policies on the part of their adversaries.

No one would pretend that security no longer need be a concern of the non-communist world. But it would be foolish not to recognize that much of what was sought in the security sphere has been accomplished. The only combat employment of the Soviet Army since World War II has been against its own allies -- East Germany, Hungary, Czechoslovak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 pattern of accommodation is beginning to emerge, in which the great powers are beginning to exercise restraint in asserting and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and treat with respect each other's legitimate interests, even when they are in conflict.

The Nixon Doctrine recognizes, in Asia, that the post-war period is at an end. It does not put an end to -- in fact, it reaffirms -- our mutual defense treaties in the area. But it acknowledges the enormous change in the relative strength of ourselves and our allies, and seeks relationships with them

that conform to present day realities.

It represents an implicit recognition that -- although there remains a bi-polarity in the world in security terms, where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continue to count the most -- there is a multi-polarity emerging in diplomatic terms. The limitations on nuclear power that have resulted from strategic deterrence have served to emphasize other elements in national power, which will lead to enhanced roles on the world scene by other powers.

It is certainly not to be taken as a statement of official U.S. policy, but it is nonetheless worth submitting to a scholarly group such as this; the useful analysis of Prof. Robert A. Scalapino,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Prof. Scalapino, in this summer's national security subcommittee hearings, scoffed at suggestions that we were entering an era of "Equidistant multi-polar" relations, in which four or five states had approximately equal relations with each other, and approximately equal power. Instead, he envisioned a period of two triangular relationships, both involving critical roles for the United States.

The first triangle he saw as one involving the Soviet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evolving around issues of peaceful coexistence, weapons' control, and other matters involving Japa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 matters of economic intercourse and political-military cooperation.

Whatever form of analysis is used, it is clearly recognized by most serious observers that the success of post-war policy has changed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on the world scene, Asia included. These changes have given rise to possibilities for new policy initiatives, which the Nixon administration has seized. But it must not be forgotten that it is not only the United States which has recognized these changes. As former Undersecretary of State and now once more a Yale Law School professor, Eugene Rostow has recently noted, President Nixon's visit to China represents at least as great a change in Chinese policy as in American. And Soviet acceptance of parity as a deterrent principle in the SALT negotiations is a significant change in Soviet strategic thinking.

In light of these changed relationships, it is well to ask: What is America's current outlook on East Asia?

Few men within government have thought as seriously about that question, or have been in a better position to study it, than Marshall Gree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r. Green, well known to many of you personally, made a major tour of Asia last July, and was asked to address the corps of American and foreign correspondents who regularly attend the State Department briefings held in Washington daily upon his return. That impromptu briefing provides some useful insights into the thinking of top policy planners in Washington these days, and I want to share some of its major points with you.

As he sees it, the United States must assume -- despite the atmosphere of change and the diminishing role of violence in the area -- that the nations of the area have not changed their fundamental objectives. There is an increasing consensus within the area that, in seeking these goals, competition should take forms that are less likely to engulf the region in war, which include diplomatic, economic, propaganda and the like.

As Secretary Green noted, when Premire Chou returned to Peking after having said goodbye to President Nixon in Shanghai, the new line in Peking was: "Long live Chairman Mao's revolutionary diplomatic line."

U.S. policy makers consider the leadership of China to be made up of men who think of themselves as revolutionaries, and are proud of that fact. But we think of them also as men who are realistically concerned with questions of national interes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of power relationships.

By virtue of the growth of pragmatism in the area, there seems to be a greater willingness on the part of most countries to set aside -- at least for the time being -- deeply divisive and potentially dangerous issues. As a consequence, they may prove to be less explosive, more manageable and, over time, may prove themselves capable of peaceful resolution.

Secretary Green would characterize the present period as one in which the nations in the area and with interests in the area are exploring the benefits that can be derived from President Nixon's summit meetings and other elements of change -- benefits such as improved dialogue, improved mutual

perceptions, and obviously, a substantial reduction of tensions.

One of the first consequences of the announcement of the President's visit to China was movement in Japan towards improved dialogue with both the Soviet Un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United States does not look upon this development of improved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by Japan as being at the expense of enduring close ties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we believe the Japanese feel the same way.

There is, after all, an increasing amount of attention being paid in all parts of the world to Northeast Asia, which is part of what geo-politicians refer to as the "power belt" of the world. It is an area that we perceive as being rich in human resources, whose people have a high degree of intelligence, energy, and adaptability. It is, as has been noted on many occasion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the interests of four of the five major powers of the world -- The U.S., Japan, Russia and China -- converge. A lessening of tensions in this area, therefore, has immediate consequences for the prospects of peace throughout the world.

And at the heart of this four-power convergence lies Korea, where dangerous incident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were considered matters of grave concern in capitals throughout the world, Washington not excepted.

The initiation of Red Cross contacts begun by your government, the July 4 communique, the subsequent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talks have been greeted with relief throughout the region, and throughout the world. This has provided additional evidence that all of the great powers wanted to see tensions on this peninsula reduced.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initiated what is likely to be only the beginning of a long process towards better understanding and more peaceful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owards humanitarian exchanges of visits between families tragically separated. It recognizes that progress will be dependent upon the Republic of Korea's self-confidence, part of which results from the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which the United States has furnished and, of course, from the mutual defense treaty.

Secretary Green did not predict immediate resolution of

the Korean problem or of others that have plagued East Asia. But he did indicate that, throughout the region, the more explosive issues -- those that relate directly to war and peace -- seem to have a better prospect of eventual solution, because there seems to be an increasing realization that war would be impermissible.

No one feels that, because of this, the challenge to U.S. policy in the area is reduced. If anything, it is greater in the diplomatic and economic fields. And it certainly does not warrant a relaxation of America's securities ties with her allies.

But it does mean that the creative diplomatic energies, that were less than fully useful when relations throughout the region were characterized simply by military confrontations, can now come into play.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mong the first to make use of these new opportunities has been a source of gratification to all of her friends.

Thank you.

中共의 對韓半島政策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韓國外國語大學
教授 金 憲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中共의 對韓半島政策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金 憲

I. 狀況變化와 中共의 政策的 対応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東아시아의 勢力關係에는 두드러진 變化가 일어났다. 이 變化의 特徵의 樣相은 흔히 말하듯이 1960年代를 通하여 醸成되었던 多極的 均衡體制의 成立으로 要約될 수 있다. 確言하기는 힘드나 1970年代를 通하여 이러한 多極的 勢力均衡體制가 根本的인 動搖나 互解없이 지속하리라는 期待는 여러 가지 狀況的 與件들로 미루어 相當히 根拠있는 것이라 믿어진다. 中·蘇 兩國이 現在의 對立과 紛爭을 解消하고 이전의 하나의 「블럭」으로 再結合된다거나 美·日 兩國의 全般的 同盟關係가 조금도 弛緩되지 않고 그대로 持續한다거나 또는 美·蘇 및 美-中共關係가 冷戰的 敵對關係로 還元된다거나 하는 豫想하기 힘든 事態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可能性이 희박한 이상, 그러한 期待가 어그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 勿論 이 이야기가 곧 새로운 形成된 四極均衡體制가 완벽하고 항구적인 安定性을 成就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들 四強勢力 가운데 어느 二個國間의 關係에 있어서든지 完全한 同盟이 再形成될 可能性이 희박하고 代身 個個國家의 「獨立獨行」의 路線이 強化되리라는 論據에서 冷戰的 兩極體制로 還元하지는 않으리라는 뜻이다. 이러한 情勢變化를 가장 두드러지게 反映하고 있는 것은 中共 對外政策으로서

變化에 對한 最近 中共의 政策的 對應에서 刮目할 伸縮性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過去 中共은 그 對外政策에 있어서 두가지 相剋的 要因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卽 教條的 理念에의 dogmatic한 執着과 傳統的 國家利益에의 현신적 引力이 부단히 갈등을 지속해왔고 對內的, 對外的 要因의 相互作用에 따라 中共 對外政策의 優先的 力點은 그때마다 變해왔다. 그러나 自體의 힘에 對한 充分한 確信 없이 着手한 韓國戰介入 以來로 約 20年間에 걸친 中共의 對外政策에 있어서는 理念的 教條性과 革命的 戰鬪性이 大体로 支配的 傾向을 이루고 있었음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한 色彩가 絶頂에 達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文化革命期間이었던 것으로 外交部와 英國公館을 습격한 「5.16兵團」의 과격한 行動은 그 代表的 例였었다. 그러나 이들 過激派의 銳鋒이 꺾여지기 始作한 것은 中共이 와르샤와 美中大使會談 再開를 提議한 1968年 늦가을부터였고 1969年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러한 政策轉換의 氣運은 共存原則을 強調한 九全大會를 高비로 더욱 두드러졌다. 1971年에 이르러 超強硬派 陳伯達과 「5.16兵團」의 完全 숙청, 이에 뒤이은 林彪 中心의 中央軍部勢力의 去勢로 단연 勢力的 優位를 確保하게 된 周恩來 中心의 穩健派 進出은 對外政策의 穩健化에 決定的 拍車를 加하게 되었다. 이러한 轉換은 切迫한 蘇聯의 軍事的 威脅으로 더욱 급속히 刺戟된 것이다.

周恩來의 새로운 外交政策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두가지의

두드러진 力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의 力点은 傳統的 國家間關係에 對한 尊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所謂 「人民外交」의 革命的 側面이 後退하고 代身 傳統的인 「政府對 政府」外交가 強化된 것을 뜻한다. 이말은 中共 外交政策에서 人民外交方式이 全혀 活用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對美 「평풍」外交에서 볼 수 있다싶이 그러한 方式이 政府間外交를 促進하는 補助的 方式으로 活用된 뿐, 한때의 露骨的 造反政策에서 볼 수 있었던 敬鬪的 局面이 현저히 後退한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內政不干涉原則에 立脚한 既存外國政府의 現狀尊重과 所謂 民族解放運動支援範圍의 選擇的 限定이 그 特徵으로 나타난다.

「反動的 팻시스트」로 부르던 「버마」의 「네윈」에 對한 微笑와 「셀라시에」皇帝의 「에치오피아」政府에 對한 8千4百萬弗의 借款 供與 毛沢東主義者들의 反亂 勢力을 無視한 「실론」現政權에의 支持등은 그러한 對外政策의 傾向을 立証하는 좋은 例가 될 것이다. 그리고 民族解放運動의 支援範圍도 周恩來가 明白히 했듯이 「侵略에 直面해 있는」民族과 아프리카의 「폴투갈」領과 같은 現在 植民地로 남아있는 地域에 限定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의 力点은 美·中共同聲明에서도 明白히 시사되었듯이 地域的 「헤게모니」追求 競爭을 새로운 多極勢力均衡體制形成으로 中和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力点은 中共이 아직 潛在的 超強勢力에 不過하다는 自体認識, 그리고 兩超強國, 特히 蘇聯의 軍事的 위협과 日本의 새로운 進出을 意識한데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狀況에서 中共의 安保와 利益을 極大化시키고자 하는 戰略的 適應으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Ⅱ. 中共對韓半島政策決定의 誘因

韓半島는 東아시아의 流動的 勢力均衡關係의 樣相을 가장 銳敏하게 反映하고 있는 곳이다. 韓末의 歷史에서도 읽을수 있듯이 韓半島는 그 特殊한 地政學的 與件으로 因해서 東아시아 強大勢力關係의 向背와 關係하여 至大한 意味를 갖는다. 따라서 中共이 韓半島의 重大한 國際政治的 意味를 가장 深刻하게 받아 드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中共이 1950年 어려운 國內的 與件에도 不拘하고 韓國戰介入의 冒險을 敢行한 것과 또한 그 參戰을 通해서 國際政治舞臺에 새로운 強大勢力으로 進出한 事實만 보더라도 中共에 對한 韓半島의 重要한 意味는 能히 立証된다.

그러나 한가지 留意할 것은 中共의 韓半島를 둘러싼 基本的 利害關係는 韓國戰爭때나 지금이나 變함이 없으나 他強大勢力과의 關係樣相에는 變化를 볼수 있다. 첫째로, 韓國戰爭時 直接的 武力 對決關係에 있던 美國의 對韓公約水準이 減縮一路에 있다는 것과 美國과의 和解에 따라 韓半島問題에 關한 協調와 妥協의 余地를 갖게 되었다는 變化를 들수 있다. 둘째로, 韓國戰 當時에도 中共은 韓國問題와 關係하여 소련과 日本의 存在를 潛在的 경쟁자로 意識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소련과의 「불력」關係가 強固했었고 日本은 政治的으로나 軍事的으로 競爭될수 없는 地位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두勢力과의 韓半島를 둘러싼 關係가 顯示的 競爭關係로 變했고 相互排除의이고 상호 견제적인 것으로 變했다. 더구나 같은 域內國家인 日本의 새로운 政治勢力으로의 登場은 中共에게는 하나의 衝擊的인 事態發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韓半島에 關한 限 中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

고 있는 것은 소련과 日本의 存在이며 美国은 「後退하는 威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선 소련과의 相衡 관계에서 中共對韓半島政策의 重大한 誘因을 찾을수 있겠다. 中共이 韓國戰에 參戰했을 때부터 그 動機에 있어서 韓半島에서 소련勢力을 견제, 弱화시키려는 試圖가 숨어 있었다는 것은 納得이 가는 이야기다. 中共의 韓國戰介入 動機에 關해서는 確實한 文書上的 証拠가 없어 무어라 断定하기 곤란하나 한가지 確實하게 보이는 것은 中共이 순전히 소련의 使喚 때문에 他律적으로 끌려들어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韓半島에 있어서 當時부터 中共은 소련과의 相衡的인 利害關係를 考慮했고 또 그러한 考慮에 立脚한 独自の 判斷이 介入決定에서 強하게 作用했으리라는 것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그 介入의 動機에 관한 하나의 그럴사한 추측은 北韓에 對한 소련의 勢力的 優位가 固定되는 것을 막으려는 意圖가 없지 않았다는 點이다.

오늘의 政勢에 있어서는 韓半島에 對한 소련의 영향력 增大에 훨씬 예민한 관심을 中共이 가질만한 이유가 더 明確해졌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소련과의 對立關係가 表面化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그렇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中共이 東南亞와 南아시아에서 소련의 對中共包圍網 形成에 萎縮感을 느끼고 있는 지금 소련으로 하여금 東아시아 進出의 拠点이 되는 韓半島에서 勢力을 擴張하도록 방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韓國戰爭以後에 中共이 展開해온 對北韓政策의 가장 두드러진 力點이 北韓에 對한 소련의 영향력을 極少化시키는데 있었다는 事實과 또한 그 過程에 있어서 北韓에 對한 소련과의 체계모니競爭을 위해서

支払한 莫大한 努力을 보더라도 韓半島에 對한 소련勢力 進出의 檢계가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을 決定짓는 重大한 誘因임을 쉽사리 發見할수 있는 것이다.

中共의 對北韓關係는 많은 起伏을 거쳐 왔다. 中印國境紛爭과 流巴海岸封鎖事件이 일어났던 1962년으로부터 約3年間 中共-北韓 協力關係의 絶頂期가 있었던 反面, 1966年으로부터 1968年까지의 기간은 1967年의 紅衛隊의 金日成규탄과 이에 對한 北韓中央 通信의 반격에서 볼수 있다싶이 그關係가 極度로 惡化되었던 最惡의 時期였다. 이러한 起伏의 過程에서 볼수 있었던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北韓에서의 中共勢力的 伸張은 소련勢力的 萎縮으로, 그리고 前者의 萎縮은 後者의 伸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에서 나타난 對蘇關係의 局面에서 보면 소련과 他強大勢力間의 野合可能性을 除去 乃至 予防하는데 力點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다. 中共이 美國과의 和解나 日本과의 國交회복을 決心한데에는 그러한 野合의 可能性을 弱화시킴으로써 소련에 對한 입장을 相對的으로 強化시키고져 하는 意圖가 그 重要한 原因을 이루고 있는 것은 쉽사리 알수있다. 그리고 또하나의 두드러진 力點은 北韓體制의 革命的 體質에 對한 支持와 同情을 土臺로 소련과 北韓의 間隔을 되도록 擴大시키는데 주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다. 文化革命期間을 通하여 極度로 惡化된 中共-北韓關係의 긴장과 그에 나르는 소-北韓間의 協力關係強化傾向을 克服하기 爲한 中共의 策略은 主로 그러한 力點을 特徵으로 하고 있었다. 南韓을 所謂 「美帝國主義 勢力圈」 밑에 방치하고 있는 소련修正主義에 對한 警戒심을 強調한 1968年 陣毅의 演說이나

1969年 4월 北韓의 美國 F-121機 격추사건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反應을 보인 소련의 態度를 「卑屈한 屈從」으로 규탄한 新華社通信의 報道는 그 좋은 例였다. 中共은 北韓에 對하여 機會 있을 때마다 革命的이고 戰用的인 表現으로 北韓의 路線에 對한 支持를 강조해왔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소련의 修正主義와 對美 또는 對日 接近態度에 對한 北韓의 懷疑와 危懼를 刺戟하는데 努力을 集注했다.

中共 對韓半島政策의 둘째 誘因은 中共의 對日關係라는 局面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中共과 日本의 東아시아의 域內強大勢力으로서 가장 銳敏하고 複雜한 傳統的 相衡關係를 가지고 있다. 前世紀末의 韓半島內霸權을 둘러싼 濟日戰爭과 그 結果로 나타난 1895年 馬關條約 締結은 그러한 傳統的 相衡關係의 樣相을 斷적으로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韓半島와 東아시아를 둘러싼 中日間의 相互角逐的인 陰謀와 策略은 東아시아의 다른 어떤 二個強國間의 關係에 있어서보다도 뿌리깊은 歷史的 根源을 갖고 있는 것이다.

二次大戰에서의 日本敗此와 이에 따른 日本의 非軍事化로 한때 中日間의 對決樣相은 後退했었으나 美日安保條約을 土臺로 한 兩國間의 同盟關係는 恒常 中共에게 銳敏한 關心을 자극해왔으며 日本 軍國主義의 再抬頭可能性에 對해서는 中共이 恒時 警戒해온 것을 불수 있다. 더구나 最近 「닉슨·독트린」發表以後 美國의 對아시아 公約 弱화에 따르는 日本의 軍備強化 促進현상에 누구보다 당혹을 느끼고 있는 것은 中共이라 할 것이다. 日本의 政治的, 軍事的 勢力으로서의 登場이 不可避한 것이라면 中日關係의 傳統的 樣相의 再現은 難한 일이다.

1970년 4월 平壤을 訪問한 周恩来은 닉슨-사또會談을 신랄하게 批判하면서 佐藤政府에 依한 尙大한 豫算規模의 防衛計劃 推進을 들어 日本軍国主義의 復興을 하나의 「現實問題」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美國의 東部아시아로부터의 軍事的 「디스엔게이지먼트」에 따르는 日本의 軍事的 役割增大에 對한 中共의 危機와 경계는 中共의 東部아시아 政策의 가장 큰 誘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 美國이 아시아에서 遂行해온 軍事的 役割을 日本이 引受하는 데는 몇가지 重要的 制約이 따르기는 한다. 그러한 制約의 하나는 日本이 既存의 核國家와 對等한 核國家로 등장하기 爲한 軍事技術面에 있어서의 制約이고 그 둘째는 아시아 國家들의 日本에 對한 不信과 抵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如何든 日本의 軍備가 擴張추세에 놓이지 않을수 없고, 어떤 形態, 어떤 범위에서나마 美國의 軍事的 脫아시아政策實行이 남겨 놓게될 힘의 空白을 日本이 메꾸게 되리라는 期待가 蓋然性을 가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中共의 最大 關心事가 되는 것은 이러한 日本의 動態에 對한 對処가 될 것이다. 닉슨-周恩來會談에서도 日本에 對한 問題는 가장 深刻한 關心事의 하나로 討議되었을뿐 아니라 上海共同聲明 가운데서도 中共側은 「日本軍国主義의 復興과 外向的 膨脹」에 對한 斷호한 反對를 表明했고 同時에 日本이 「独立的, 民主的, 平和的 中立日本」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希望을 強力하게 다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日本の 새로운 動向에 對한 中共의 対応은 이미 修交三原則과 平和五原則에 對한 合意를 基礎로 하는 日中國交 회 복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政策的 対応에서 나타난 試圖는 무엇보다도 東아시아地域에서의 日本의 새로운 軍事的 役割 구축의 誘因을 弱化시키고 그 구축의 釐正을 鈍化시키려는 意圖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가지 注目할만한 事實은 日中共同聲明에서 美日 安保體制에 對한 言及이 빠져 있다는 點이다. 이것이 意味하는 것은 中共에게 있어서 對美同盟關係속에서 매여 있는 受動的 日本이 美國의 軍事的 役割 계승자로서의 積極的 日本 登場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認識위에서 政策을 展開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런 視角에서 볼때 韓半島에 있어서도 美軍의 早速한 撤収가 表面的인 宣傳的 主張과는 달리 中共의 希望에 부합되는 것은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韓半島에서 美軍의 完全撤収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日本의 軍備擴張을 크게 刺戟하는 契機를 주기 때문이다. 中共에게 있어서 北韓의 存在가 安保上 緊要하듯이 日本에게도 韓國의 存在는 安保上 緊要한 것은 疑心의 여지가 없다.

Ⅲ. 中共 對韓半島政策의 力点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現在의 東아시아에서 形成된 새로운 勢力 均衡속에 處한 韓半島의 狀況으로 보아 韓半島가 어느 한 強大勢力의 独占的 影響下에 놓일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韓半島가 中共의 國家的 利害關係에 있어서 아무리 決定的인 緊要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中共이 韓半島를 그의 独占的 세력권으로 歸屬시킨다는 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中共의 安保와 利益을 最大限으로 充足시킬수 있는 韓半島의 狀態를 假定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親中共一辺倒的인 政權이 韓半島全体에 安定된 支配를 確立하는 狀態일 것이다. 그러나 現在의 中共에게 있어서 그러한 最大目標의 追求가 不可能한 것이 事實이라면 妥協的 目標을 追求하는 政策路線을 抉할 것은 明確한 일이다. 더구나 1969年 九全大會를 契機로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와의 平和共存이 強調되고 地域的 「해계모니」에의 執着이 弱화된 오늘의 中共對外 政策趨勢에서 볼때 中共의 韓半島政策은 보다 現實主義的이고 妥協的인 色彩를 띠는 것은 쉽사리 생각할수 있다.

中共의 韓國戰介入, 援朝排美運動展開, 北韓의 FC-121機겨추事件을 爲始한 挑發的 行動에 對한 全面的 支持, 韓國에 對한 견제를 하나의 내용으로 하는 周四原則, 그리고 北韓에 對한 唇齒的 共同 革命意識 強調等 일련의 戰鬪的인 行動과 言辭로 미루어 볼때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은 妥協의 餘地가 없는 強硬一辺倒的 性格으로 비칠지 모르나 이미 韓國戰 當時부터도 中共은 韓半島에서 相當히

조심스럽게 制限된 目標을 追求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韓國戰介
인의 「타이밍」이 그렇게 늦었던 理由를 생각해 보더라도 中共의
態度가 相當히 慎重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UN軍이 38線을
넘어 실패부터 中共은 相當히 강경하고 위협적인 言辭를 弄했으나
戰爭에 뛰어들 것은 UN軍의 進擊이 滿洲接境에 거의 다달았을 때
였다. 이것은 中共이 自體의 安保에 直接的 위협을 느꼈기 때문
에 介入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戰鬪의
言辭로 北韓의 挑發行動에 對한 支持를 表明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여러가지 條件으로 보아 事件이 더 擴大되지 않으리라는 計算이 섰
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言辭와 實際行動은 一致하지 않았던 것이
다. 問題를 韓半島에 局限시키지 않더라도 中共이 韓國問題와 一
體의 범주에 넣고 있는 越南과 台灣問題에 있어서 어떤 態度를 取
해왔던가 하는 것은 그러한 中共의 慎重性에 관한 示唆가 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越南問題에 관한 中共의 革命的 言辭와 直接
的 軍事介入의 冷酷한 自制, 中日共同聲明에서 台灣을 中國의 不可
分의 領土로 宣言하기는 했어도 日本의 台灣에 對한 經濟的 利害
關係를 默示的으로 「理解」하는 態度나 台灣의 分離的 存立狀態에
對한 급작스러운 變更을 試圖하지는 않을 것 같은 기미는 韓國問題와
관련해서도 많은 示唆를 던지고 있다. 더구나 韓國問題는 越南이
나 台灣問題와 樣相이 다르기 때문에 中共으로서는 더욱 慎重해야
할 理由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다른 理由는 다 제
쳐 놓고라도 韓半島가 東아시아勢力均衡의 集約的 反映을 담고 있

는 곳이기 때문에 韓半島事態가 動搖할 경우 그것은 中共의 多面的 對外關係 維持의 伸縮性を 制約할뿐더러 日本의 核武裝을 促進하는 結果로 되기 때문일 것이다.

中共이 超大國으로 行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長期的 眼目에서 볼때 首肯이가지 않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적어도 中共이 아시아地域에서 「해게모니」競爭의 움직임을 露出시킬수 없는 狀況이 지속하는 限 그 이야기는 현실에 부합되는 一面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北韓에 對한 中共의 支援的 發言은 아직도 相當히 強硬하고 戰鬪的임을 볼수 있으나 실제적 軍事支援은 衰退一路에 있다. 過去에 中共-北韓關係가 惡化되어 있었을 때에도 中共은 北韓의 立場에 同調하는 革命的 修辭에는 決코 인색하지 않았다.

周恩來는 1970年 4月 平壤訪問때에 北韓과의 血盟關係를 想起시키고 韓國統一에 對한 北韓側 立場을 容호했으나 실제로 만족할만한 軍事的 援助를 남겨놓고 가지는 않았으며 周의 隨行員을 보더라도 軍事關係者는 包含되어 있지 않았다. 周恩來의 平壤訪問의 第一次的 目的은 北韓指導者들에 對한 心理的 격려를 넘어서지 못한 것 같다. 다만 中共이 그 現實主義的 對外政策傾向과 달리 北韓에 對한 強硬한 支援을 公言하는 것은 韓半島에 對한 소련의 現狀維持政策과의 對照를 浮刻시킴으로써 教條的인 北韓指導者들의 好意的 關心을 刺戟하려는 意識的 努力이라고 해석될수 있겠다. 事實 그러한 努力이 過去 北韓에 있어서 親中共의 傾向을 造成하

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革命的 修辭의 効用에도 이제 限界가 나타난 셈이다. 1972年에 들어와 急進展되고 있는 南北韓間의 調節委를 통한 關係改善의 움직임에 北韓이 呼応하고 있는 事態는 그 動機야 무엇이던 對外的 強硬路線을 일단 止揚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간단히 말해서 韓半島의 現狀을 定着시키는 것이 現狀改変보다는 中共의 利益에 더 寄与할수 있다는 判斷이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에 점점 두렷이 作用하고 있으며 적어도 1970年代를 通하여 그러한 現狀維持政策이 크게 動搖할 可能性은 別로 엿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이로니칼」하게도 漸増하는 現實主義的 壓力앞에 弱化되어가는 中共의 北韓에 對한 理念的 「아필」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것은 韓國의 異質的 体制存立과 美軍少數兵力의 象徴的 韓國駐屯이 되고 있는 것이다.

Ⅳ. 南北韓關係에의 영향

앞에서도 보았듯이 東部아시아의 새로운 勢力均衡에 適應하는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은 現實主義的인 現狀維持의 現趨勢로 그대로 持續될 公算이 큰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러한 展望이 現在의 勢力均衡을 完全히 安定된 것으로 본다거나 또는 中共의 穩健한 對外政策추세를 추호의 動搖餘地도 없는 固定的인 것으로 断定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現在의 勢力均衡과 그에 相應하는 中共의 穩健의 策路線이 變數的 要因의 作用에 따라 動搖할 수 있는 餘地는 完全히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中·蘇블럭과 美同盟勢力이 對峙하는 兩極的 冷戰體制가 또 다시 復元되기 어려운 것이 現實이라고 한다면 一時的인 動搖와 部分的인 變化는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1970年代를 通하여 그러한 추세가 根本的으로 變動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趨勢의 영향밑에 놓여 있는 韓半島의 將來를 내다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다. 새로운 東아시아秩序의 樣相을 集約的으로 反映하고 있는 韓半島가 이러한 趨勢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韓半島에 對한 四強의 勢力과 利害關係가 均衡속에서 中和될 경우 韓半島內部勢力에 依한 主體的 統一의 契機가 成立될 可能性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統一이 四強中의 어느 한 勢力에게 不安을 주는 不安定한 統一이 될 蓋然性이 길다는 事實을 否認할 수 없다면 強大國들은 不安定한 統一보다 安定된 分斷을 願하게 될 것은 明白한 것이다. 中共의 예민한 對日關係에서 볼때 그러한 現狀維持의 誘因은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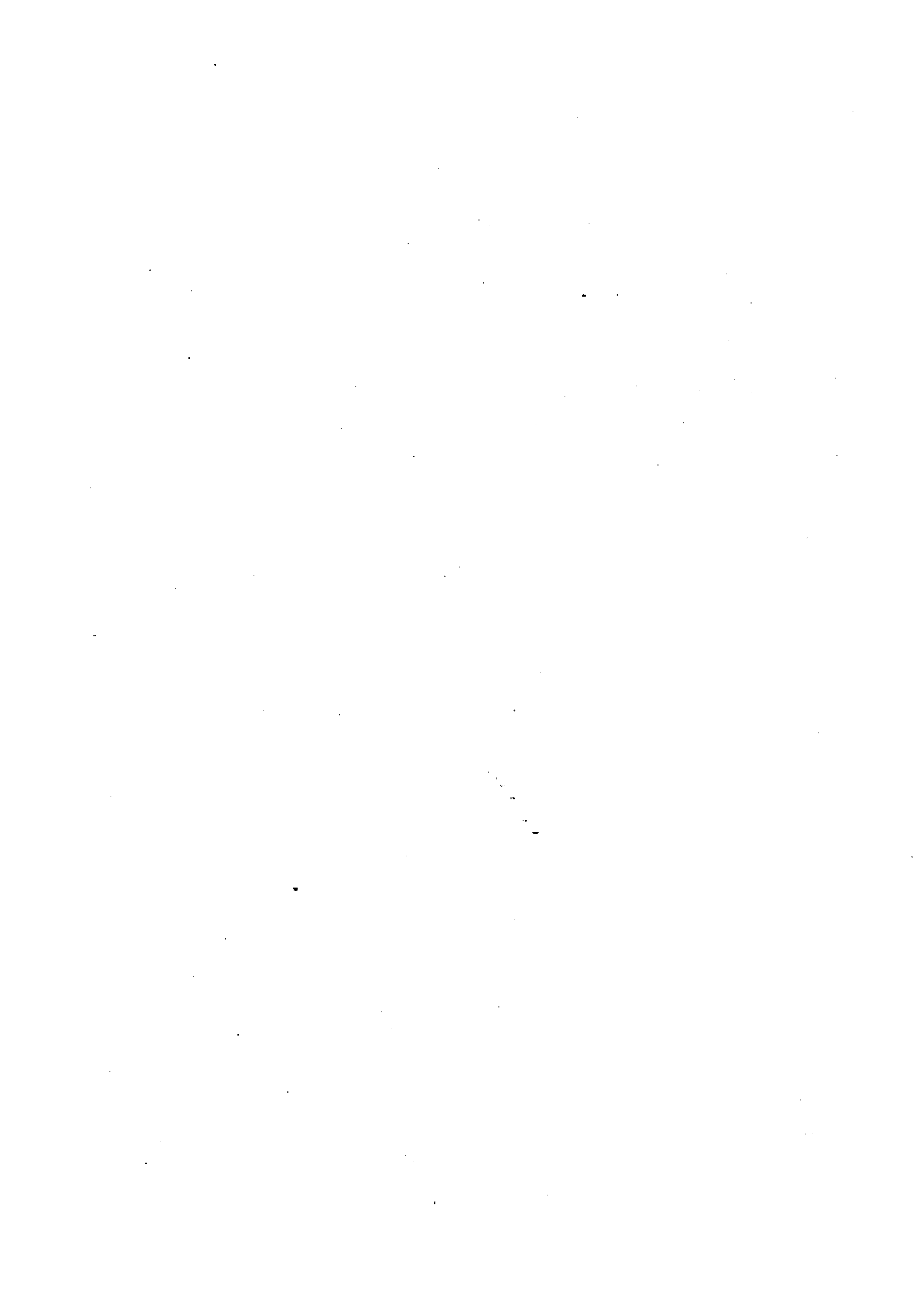
강한 것이다. 中共은 現在の 韓半島에서 極大目標을 追求할 수 없는 制約을 明白히 認識하고 있으며 따라서 分断現狀 安定化에 政策的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1971년 8월 周恩來가 「레스턴」記者에게 韓半島의 戰爭狀態 終結을 爲한 平和條約의 必要性을 指摘한 것은 그러한 力點을 잘 說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狀安定化政策은 他強大勢力에 依해서도 잘 迎合되고 있다.

韓半島를 둘러싼 四強의 勢力均衡과 中共의 對外政策은 結論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南北韓關係의 現狀打破보다는 現狀安定化에로의 壓力으로 作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와 같은 假定에서 볼때 1970年代의 南北韓關係에서는 흔히 論議되듯이 緊張緩和와 交流增大가 豫測된다.

그리고 韓半島의 与件에서 그러한 交流增大가 誘發할 統一에의 假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한 象徴的 統一機構 形成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統一機構가 南北韓間의 既存勢力關係의 實質을 基本的으로 變動시키는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의 對韓半島政策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慶熙大學校政經大學
教授 李 命 植

조선의 對韓半島政策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李 命 植

1. 南北關係의 變化要因

- 그外在性和 内在性 -

70年代에 있어서 南北關係의 變化動因을 外在性 - 外部의 環境 變化要因 - 과 内在性 - 自律的인 對話의 摸索 - 이라는 측면에서 檢討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前者 즉 外在性이라 함은 戰後 4半世紀동안 韓半島問題에 直接·間接으로 關與해온 強大國들의 力学關係가 相互 牽制와 均衡의 維持를 위한 競合的인 共存 내지는 協商이라는 狀況에는 變質됨에 따라 惹起되고 있는 問題들을 克服해야 한다는 必然性을 南北韓이 同時에 經驗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말하자면 美·蘇·日·中共 4大強國의 頂上會談을 통한 相互 合意 理解 諒解 事項은 部門的인 面에서는 相異한 點을 發見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 底流에 흐르고 있는 共通性은 各己 自己為主의 國利保護로 集約되고 있다.

이것은 國際政治에 있어서 行動主体로서의 強大國의 相互作用에 一大變化를 초래케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從前까지 行動客體로서 存統되어 오고 있는 弱小國에 至大한 「임팩트」를 주고 있음은 當然한 論理의 趨勢라고 본다. 말하자면 外部 環境要因의 變化에 따라 試凶되고 있는 強大國間의 妥協과 協商過程에 있어서의 操作性은 多樣하므로 이를 克服 내지는 沮止하기 위한 代案摸索을 위해서도 南北關係의 調整問題는 不可避한 當面課題라고 하겠다.

外勢의 影響으로 부터 벗어나 自主·民族·平和統一의 宿願을 實現한다는 南北間의 共同聲明에서도 淸명한 바와 같이 70年代의 韓半島問題가 自律에 依한 解決策의 摸索으로 發展되고 있음은 時代的인 當爲性을 立証하고 있다.

後者인 內在性이라 함은 民族의 同質性에 立脚한 南北對話의 必然性을 意味한다. 單一民族이라는 것이 統合을 容易케 하는 最上의 統一可能條件임을 南北韓이 是認하여 왔음에도 不拘하고 戰後 4半世紀동안 南北은 서로 異質的인 體制의 維持 強化로서 異民族 以上으로 敵對視해 왔고 特히 武裝革命理論을 實踐化시켜 보려던 北韓의 對南侵入 過程은 南北간의 統一을 위한 對話의 沮害 要因이 되고 있었음은 물론 同一民族을 分裂시킨 結果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民族의 同質性을 바탕으로 한 南北間의 對話가 트인 以上 今後의 狀況進展은 아직 豫測하기는 힘들지만 最小限 冷戰時代와 같은 平和破壞의 極端的인 만행이나 民族殺傷의 悲劇이 再演되리라고는 豫상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狀況變化의 상은 南北이 同時에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基本前提라고 看做된다.

또한 그와같은 態度的 定立이 先行될때 南北關係가 調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平和統一에 對한 否定論이 排除될 수 있겠다.

以上 言及한 南北關係 變化動因의 外在性과 內在性은 70年代에 있어서의 소련의 對韓半島 閔與政策의 分析 評價를 위한 大前提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戰後 冷戰體制나 60年代에 있어서의 共存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은 社會主義諸國間을 團結과 支援原則의 一環으로 北韓政權에 對한 積極的인 援助를 통해 소련勢力圈의 維持 強化에 主力해 왔으므로 南韓에 對한 北韓의 革命統一 戰略과 戰術을 뒷받침 함에 있어 커다란 影響力을 行使해 왔음이 事實이다. 그러나 70年代에 접어들면서 부터 急激하게 變化되고 있는 強大國 相互間의 力学關係 調整에 따른 對北韓 閔與의 制約性과 더욱이 南北對話를 契機로 한 韓半島

의 긴장완화라는 變化与件, 또한 外勢의 影響力 - 소련에 依한 單一支配体制의 要求 - 을 可能한 限 減縮시키고 內勢의 政治力 - 自力更生에 依한 金日成体制의 整備 強化 - 을 極大化시키고 있는 狀況 變化등이 表面化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의 對韓半島, 그 一環으로서의 對北韓政策에도 數多한 制約性과 沮害要因이 介在되고 있음을 認知하고 있음이 現狀況이다.

따라서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의 全體的인 輪廓과 그 本質的인 內容에 對한 檢討는 소련이 遂行하고 있는 對아시아 戰略上的 基本路線과 美·日·中共의 對아시아 政策과의 相關關係와 直結되고 있다는 테두리 안에서 試圖되어야 한다.

II. 소련의 對아시아政策의 基本路線과 그柔軟性

現代的 意味에서 소련의 對아시아政策의 基本路線은 傳統的인 南進政策, 平和共存 原則에 立脚한 아시아諸國과의 關係改善政策 및 強大國間의 關係調整을 優先視하고 있으나 對中共軍制·包圍政策은 現속도 拋棄하고 있지 않다는 三大政策으로 集約시킬 수 있겠다. 첫째 傳統的인 南進政策이라고 함은 帝政러시아 以來 오늘에 이르기 까지 一貫되어 오고 있는 政策類型으로서 아시아地域內에 不凍港을 掌握하여 南進政策을 容易하게 遂行할 수 있겠끔 好條件을 構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어떠한 環境의 變化가 아시아地域에 초래 되더라도 同政策을 양보 내지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平和共存政策이라 함은 소련外交政策의 基本路線으로서 흐르시 초프 以來 現 소련指導層에 이르기까지 異質的인 社会体制間의 關係改善을 위한 現實的인 戰略이다. 그러면서도 同共存政策의 底意에는 브레즈네프의 表現대로 「平和共存은 共產主義의 최종 승리를 위한 轉換期的인 用語이며 또한 政策의 하나이며, 同共存原則은 抑壓者와 被抑壓者 植民地 支配者와 犧牲者間에는 適用되지 않는다」라는 基本原則이 排除되지 않고 있다. 브레즈네프의 이같은 見解에는 現實的으로 平和共存은 어느나라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可能한 것이지만 後進的인 아시아地域 國家와의 共存關係에 있어서는 特히 民族解放運動이라는 條件이 隨伴된 기초위에서 共存의 合理性을 追求한다는 意味가 內包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소련 共產黨綱領에 規定하고 있는 바와같이 「民族國家는 客觀的으로는 大体로 進步的·革命的 및 反帝國主義的인 勢力이며, 世界的 社會主義와 世界的 民

民族解放運動 사이에는 긴밀한 共通의 利益이 存在하고 있으므로 民族解放運動의 支援은 國際主義的 責務」라고 한 以上 現 소련 指導層의 아시아 民族國家와 民族解放運動과의 提携關係에 대한 하나의 重要한 理論的 根拠가 되고 있음을 看過 할 수 없다.

그러나 現實的인 面에서 볼때 소련 指導層의 民族解放鬪爭에 대한 支援과 平和共存과의 相互關係 調整이라는 觀點에서 볼때 問題視되고 있는 것은 예컨대 브레즈네프 스스로의 見解대로 「民族解放鬪爭의 支援은 이데올로기 面에서의 共存否定과 結付되는 성질의 것이지만 見解의 相異로 인해 반드시 戰爭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以上 소련이 아시아 地畵國家의 民族解放鬪爭 支援을 위해 自國의 安全을 위태롭게 하면서 까지 武力對決을 원치 않는다는 現實的인 論理가 成立되고 있다는 點이다.

예컨대, 越南戰에 있어서 소련이 越南民族解放支援을 위해 直接的인 武力介入을 단행하지 못한 一聯의 專例로 보아 소련이 提起하고 있는 平和共存과 民族解放鬪爭 支援間에는 相互矛盾된 實踐理論이 介在되고 있는 바, 現 소련 指導層의 對아시아 政策上的 「딜레마」는 이러한 相互矛盾 關係를 如何히 調整하느냐가 問題로 되고 있음도 否定할 수는 없다.

이러한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現實適應理論이 브레즈네프의 「原則의 柔軟的 實施」로서 侵略者에 대해서는 非妥協的인 面과 동시에 流動的인 國際環境에 適應한다는 現實面에 重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現속 推進되고 있는 소련 平和共存政策의 一環으로서의 對아시아 政策에서 重要한 것은 그들의 基本的인 理論은 社會主義原則의 固守라고 하겠지만 한편 그 原則의 柔軟的인

實施과정에 露呈되고 있는 多様な 戰略과 戰術의 擴大傾向이다. 말하자면 소련이 追求하고 있는 對아시아 政策의 目的은 스탈린時代와 같이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直接的인 移植에 대한 緊要性 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國家의 특이한 社会構造를 現實的인 狀況으로 是認하고 이들 國家와의 關係改善을 위한 積極的인 接近策을 企圖함에 있다. 이것은 現 소련 指導層에 依해 強調되고 있는 國利 優先主義原則에 立脚한 現實主義 政策인바, 최근 急激하게 變化되어 가고 있는 아시아적 國際政治秩序라는 狀況속에서 소련이 追求하고 있는 目的과 手段間의 相互作用에 있어 보다 合理的인 接近方法을 摸索해 보려는 証示라고 하겠다.

세계 소련의 對아시아 政策 遂行過程에서 最惡의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 것은 中共의 存在이다. 따라서 中·蘇間의 對立과 競合關係는 兩國사이에 基本的인 敵對 行爲의 修正 또는 調整이, 成立되지 않는 限 相互 충돌을 免키 힘든 것이 現狀況이다. 其實 소련은 中共과의 對立이 극심해졌던 60年代 初 부터 아시아 特別히 東南亞地域 國家와의 關係改善을 활발히 推進시켰던바 이에 對한 아시아 諸國의 受容態度는 極히 好調的이었다.

그것은 前記한 바 平和共存原則에 立脚한 소련의 柔軟的인 現實 政策에 對해 大部分의 아시아 國家들은 同調的이었고, 반면 敎條主義的이고도 好戰的인 中共의 對外政策路線에 對해 그들의 反應은 非友好的이며 非協助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9年 4월에 있었던 九全大會 以後 中共 스스로도 外 的環境에 順應하여 아시아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에의 政策轉換의 緊要性을 是認함에 따라 從來의 아시아 國家들로 부터의 敵對的인 對

中共觀을 好意的인 方向으로 돌이킬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욱이 美·日과의 和解政策 試圖로 中共의 位置와 役割은 名實共히 아시아地域内에서의 行動主体로써 認定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아시아諸國과의 關係를 同一國家系로 認視하고 있는 中共으로서는 美的인 소련의 積極的인 아시아進出을 견제 또는 阻止시키기 위한 多角的인 手段을 使用하고 있다.

이와같은 中共의 對外行爲 變化에 따라 소련의 戰略 亦是 多様하며, 特히 最近 서두르고 있는 發展的援助戰略 (The Developmental-Aid Strategy) 을 통한 아시아 國家들과의 密接한 紐帶關係 維持는 소련이 多年間 同地域内에 構築해 놓은 莫大한 열매를 保護하기 위함에 있음은 當然하다고 본다.

要컨대, 소련의 對아시아政策의 基本方向은 以上 言及한 三大戰略을 先行條件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戰略은 環境要因과 時間要因에 따라 流動的이며 또한 適用上에 柔軟性이 內包되고 있는 것이 特徵的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同戰略은 우선 行動主体로서의 強大國間的 行爲調整은 물론 行動客体인 弱小國과의 關係設定問題에 있어서도 同時에 適用시키려는 一聯의 現實主義 政策으로서 和解·對立·競爭의 手段으로 看做되어 진다.

Ⅲ. 소련의 對韓半島戰略

소련의 韓半島에 對한 基本政策을 大體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集約할 수 있겠다. 첫째는 歷史的인 傳統성과 地政學的인 立場에서 帝政러시아 以來 一貫되고 있는 南進政策이며, 둘째는 이데올로기 또는 政治的인 面에서의 政策으로서 社會主義體制의 最終 勝利를 위한 民族解放鬭爭支援政策이다.

세째는 軍事戰略上의 重要性에서 韓半島를 極東 前哨地나 安保上의 緩衝地帶로 維持 함으로서 對西方 견제는 물론 對아시아 進출을 위한 교량으로 利用하려는 多目的 政策이다. 이와같은 소련의 對韓半島 基本政策은 戰後 4半世紀동안 持續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그 本質 自体는 現수도 變化되고 있지 않음이 事實이나 同政策을 遂行하는 過程上에 露呈되고 있는 對外行爲에는 確實히 流動성과 柔軟성이 隨伴되고 있음이 特徵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南進政策의 類型을 살펴보면 帝政러시아 때에 強調되어온 領土膨脹政策을 통한 「슬라브」支配圈의 擴張計劃 推進이 戰後 冷戰體制下에서의 스탈린時代에는 積極성을 띤 一聯의 侵略政策으로 一貫되어왔지만 平和共存을 바탕으로한 政策的인 轉換期에 접어들면서 부터 南進政策의 主目的을 領土의 擴張에 設定하는 것 보다는 現實的인 이슈의 解決을 위한 國家間의 關係調整 내지는 改善에도 그 方向을 돌리고 있음이 現狀況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政策的配慮의 裏面에는 아직도 蘇聯의 宿願인 海軍基地의 確保를 위한 必死的인 努力이 現存하고 있다는 事實을 排除할 수는 없다.

한편 社會主義宗主國의 權威와 리더쉽을 大前提로 한 所謂 「兄弟 國間의 紐帶關係를 維持 強化하여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統一을 完遂

하기 위해」民族解放鬭爭을 積極的으로 支援한다는 것은 現蘇聯 對外政策의 基本方針임에는 틀림 없다.

其實 「크레믈린」을 中心으로 한 單一支配體制의 形成時期에 있어서 同政策은 餘他社會主義國家에게 適用되어온 不動的인 것이었으며, 그 一環으로 韓半島를 赤化統一시키기 위한 對北韓支援政策은 蘇聯의 立場에서 볼때에도 死活的인 關係에 있었다. 그러나 國際的環境要因의 變化 즉 政治的 多元化的 急變한 趨勢를 實感하게 된 소련은 前記한바 民族解放鬭爭支援을 國際的義務로 是認하긴 하나 그와같은 「義務」 이행만이 國利增進을 위한 唯一의 政策으로 看做하지 않으려는 傾向이 顯저해지고 있다. 그 理由는 첫째 現 소련對外政策의 基本方向이 國際的 環境趨勢에 適応하여 自國을 위한 最大值의 收獲을 획득하려는 現實主義原則에 立脚하고 있다는 點이다.

말하자면 소련의 流動的인 現實主義政策의 本質과 內容이 最小의 희생을 통한 最大의 열매 取得에 있는바 흐르시초프의 뉴-룩크政策(New-look Policy)을 이어받고 있는 現소련指導層의 對外政策의 一環으로 아시아 政策의 主目的도 國利에 損失을 주는 過重한 介入을 止擧하고 事後의 收獲을 掌握하려는데 있음이 明若靚火 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中·蘇對立의 表面化를 契機로 國際共產主義運動 亦是 分裂狀態에 直面해짐에 따라 소련 「모델」의 革命支援 手段의 絶對的인 効力性에 대해 회의감을 體得케 됨은 물론 行動主体인 強大國사이의 競爭的共存原則에 立脚해 볼때에도 從前과 같은 民族解放鬭爭에 대한 無條件 支援方式은 自國의 利得에 死活的인 도움이 되지 않음을 確認하게 된 點이라고 하겠다.

세째번 理由는 最小限 「이데올로기」面에서 본 北韓 소련간의 不調和 關係에서 惹起되고 있는 現實問題이다.

北韓은 現位置에서 볼때 이데올로기의인 側面은 確實히 中共에게 接近되고 있다고 봄이 妥當할것이나 實利追求에 있어서는 自律的인 對外行爲의 斷行과 同時에 自力更生을 통한 內的 政治力의 強化에 嚴重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對北韓革命支援關係는 물론 今後에 展開될 國際情勢의 變化와 그에 따른 韓半島 事情의 變化動因에 依해 左右되어 질 것이지만 現狀況을 감안할때 積極性을 띄게 되리라고는 期待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多目的을 위한 韓半島의 重要性을 認定하고 있는 소련의 現實主義 政策類型을 檢討하기로 한다. 앞서 指摘한 바와같이 소련의 對韓半島關與의 動機와 目的은 強大國간의 勢力均衡을 위한 緩衝地帶로서의 활용과 軍事的인 膨脹과 견제를 위한 極東前哨地帶의 掌握에 있다. 其實 소련·中共·北韓 三角關係가 「이데올로기」나 實利面에서 調和를 이루웠던 時期에 있어서는 마치 無風地帶를 달리는 密月旅行을 聯想하리 만큼 順調로웠기 때문에 相互間에 對立과 競合狀態란 상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소련이 韓半島를 緩衝地帶化 또는 極東前哨基地化 目的에 利用하려는 意圖에 對해 中共이나 北韓의 反應은 肯定的이었음을 물론 그러한 소련의 政策만이 그들의 國利와 直結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中·蘇間의 격심한 對立, 特히 國境紛爭으로 兩國간의 利害得失을 둘러싼 不調和關係와 對소견제를 目的中的의 하나로 새로운 政策 轉換을 斷行한 中共의 對美接近과 自主路線을 宣稱한 北韓이 對蘇關係를 再檢討하는 한편 自力更生原則에 立脚한 國內政治力의 再整備 強化하

고 있는 傾向이 濃厚해짐에 따라 소련의 對北韓政策도 從前과 같은 固定的인 틀에서 벗어나 보다 柔軟的인 配慮가 先行되기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소련이 北韓에 對한 直接的인 經濟援助 및 軍事援助가 1971年부터 公式的으로 中止되고 間接的인 援助가 相互貿易의 形態로 提供되고 있다는 事實은 앞서 指摘한 北韓 소련關係의 不均衡性을 立証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現實的인 事例를 감안할때 소련의 對韓半島間與戰略 過程上에 數多한 制約性과 沮害要因이 가로 놓여 있다고 보는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理由를 들어 說明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行動主体인 強大國 特히 美·中共·日本과의 競合的共存關係에 불매 소련의 位置와 役割은 對等關係에 있는 것이기 결코 어느 한나라 보다 順位의 立場에서 現存均衡과 秩序를 破壞시킬 수 없다는 點이다.

따라서 韓半島問題에 관한 限 美·中共·日本이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一方的으로 能動的인 態度 表明을 한다는 것은 現狀況下에서는 거의 不可能하다는 力学關係의 論理가 成立된다.

두번째는 앞서 言及한바 中·蘇對立關係에서 惹起되고 있는 沮害要因이다. 最近 中共이 對外政策을 획기적으로 轉換시키고 있는 主된 理由의 하나가 時代潮流에 適應한 不可避的인 政策配慮의 隨伴이라고 보겠지만 이와 關聯된 것으로서 優先視하고 있는 것이 對蘇關係를 위한 多方面의 戰略 構築이다.

따라서 中共은 소련이 공격을 하건 또는 政治的인 壓力을 加해 오던 간에 이같은 힘을 使用치 못하도록 抑制 沮止하는 것을 当面하고 있는 對外政策上의 이슈로 確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半島問題에 있어서도 中共은 北韓과의 關係조정은 물론 餘他 強大國과의 政治的인 調整役割의 位置에서 소련의 對韓半島関與政策을 견제 할 것이 틀림 없으리라고 본다.

세번째 理由는 南北韓關係의 變化動因에 따른 沮害要因이다. 南北韓이 他律에 依한 영향력을 排除하고 民族的 同質性에 立脚한 自律的인 結合을 宜言한 狀況變化를 是認하고 있는 것이 소련의 立場인 以上 韓半島에 對한 소련의 政策上 配慮도 신중성을 期하게 될것이 豫想되므로 從前과 같은 過激한 決定과 行動을 斷行한다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보겠다.

以上 指摘한 세가지 理由로 보아 소련의 對韓政策은 多分히 制限性이 內包되고 있는것으로 集約시킬 수 있겠다.

그러므로 소련으로서의 이와같은 制約性을 克服키 위한 政策的인 代案을 摸索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바 具體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問題들은 韓半島問題와도 直結될 수 있는 것으로 看做된다. 우선 注視되고 있는 것이 소련의 對外政策의 一環으로서의 和解政策이다. 소련 共產黨 機關紙인 「프라브다」는 最近의 社說에서 「諸國民의 平和와 安全을 위한 싸움」과 緊張緩和와 國際問題의 政治的調整」이라는 一聯의 和解原則에 立脚한 政策的 配慮를 示唆하고 있다. 물론 同社說의 論旨만으로서 그 具體的인 政策目的을

正確하게 把握할 수는 없지만 全体的인 輪廓으로 보아 소련이 指向하고 있는 對外政策의 基本方向이 緊張緩和와 和解의 手段을 통한 世界問題의 打開에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또한 소련은 「모스크바」 共同聲明의 「美·蘇關係原則」에서 國際緊張을 유발할 事態를 兩國의 힘이 미치는 한 防止하는 것이 兩國의 特別한 責任이다」고 宣言하고 있는 바 共同聲明의 底意에는 最強軍事力 保有國인 소련이 美國과의 共存下에 國際問題의 政治的調整을 위한 積極的인 參與意思가 內包되고 있다고 보겠다.

이와같이 強大國間의 政治的調整役割者로서의 位置 構築을 優先視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련은 아시아諸國과의 關係改善을 활발히 推進시키고 있는 바 그 主目的은 앞서 指摘한 바와같이 中共勢力의 同地域進出을 阻止하고 60年代에 기틀을 잡아놓은 好意的인 對蘇態를 維持시키려고 함에 있다. 이 目的을 實現키 위해 使用되고 있는 手段은 多様한바, 60年代 後半期 以來 一貫되어온 政策이 이른바 發展의 援助戰略이다. 同戰略의 本質은 소련의 南進政策을 合理化시킴에 있다고 하겠지만 그 適用의 範圍와 內容은 광범하며 또한 流動的이다. 특히 同戰略에서 注視되는 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아시아國家들과의 實用的인 接近을 試圖함에 있어 우선 非政治的인 手段을 통한 紐帶關係의 強化에 置重하고 있다는 點이다.

물론 소련이 意圖하고 있는 궁극적인 目的은 아시아地域內에서 의 소련 영향력의 擴大에 있음은 否定할 수 없겠지만 現時點에서 본 소련의 態度는 緊張緩和趨勢의 現狀況을 認定하고 이에 따른 柔軟的인 接近方法을 最大限으로 推進시키려는 傾向으로 進展되고 있다.

例컨대, 최근 4, 5年동안만 하더라도 소련과 아시아 특히 東南亞 諸國과의 經濟交流關係는 正常化의 軌道를 밟고 있으며 政府指導者 및 通商使節團의 往來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事實은 今後 아시아 國家들의 對蘇受容態도가 容易해질 可能性을 示唆해 주기도 한다. 이와같은 아시아 國家들의 對蘇態度를 適時에 포착하기 위한 一聯의 政策的代案으로서 소련이 提示하고 있는 것이 所謂 「아시아集團安保體制의 構想」이기도 하다. 물론 同案이 나온 契機와 目的은 對中共包圍政策의 推進에 있었지만 최근 發表된 소련政府의 公式資料를 肯定的으로 받아드린다면 브레즈네프 書記長의 1972年 3月 20日 第15次 소련勞動組合大會에서 行한 演說에 「아시아集團安保의 基礎는 國家間的 關係에서 武力行使의 拒否 主權의 尊重과 國境의 不可侵 內政不干涉, 完全한 平等 互惠原則에 立脚한 經濟協力 및 그밖의 協力の 幅을 넓게 發展시키는데 있다」라고 한 內容은 소련이 追求하고 있는 現實的인 對아시아政策의 柔軟性을 示唆하고 있다.

以上 列挙한 몇가지의 事例는 소련의 對아시아 關与政策上 當面하고 있는 問題点이며 또한 이를 克服하기위한 政策的 代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이 南北關係에 미치는 「임팩트」를 分析 評価함에 있어서 主要視될 問題는 앞서 指摘한바 幅넓은 소련의 對外行爲의 性格과 內容에 對한 檢討가 수반되어겨야 한다는 것이다.

Ⅳ. 南北關係의 變化와 소련의 態度

최근 급격하게 進展을 보이고 있는 南北接觸의 變化狀況은 南北 韓國民들에게는 물론 世界 耳目의 焦點이 되고 있다. 特히 戰後 4半世紀동안 分斷된 韓半島 問題를 둘러싸고 相互충돌을 免키 힘 들었던 強大國들의 관심사가 至大해지고 있음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南北關係變化의 動因은 앞서 言及한바와 같이 外在性과 內在性에서 찾아 볼수 있겠지만 그와같은 變化를 초래케 한 根本的인 契機는 韓半島에 直接·間接으로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美·日·소 中共이라는 4大強國의 力学關係 調整을 위한 協商테이블의 結實에서 緣由되고 있다. 말하자면 새로운 世界秩序의 時代를 맞아 4大太平洋勢力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에 最大 關心을 돌리고 있는 바, 今年 2月 27日 上海共同聲明에서 美國과 中共은 各己 南北 韓의 緊張緩和를 통한 平和指向을 환영하고 있다. 또한 모스크바 共同聲明에서도 美·소兩國은 特定國을 指稱하고 있지는 않지만 國際的 緊張事態의 유발을 防止하기 위해 最大의 힘을 傾注한다는 原則에 相互 合意를 보고 있다. 뿐만아니라 日·中共間의 頂上會談에서도 一方的인 強大國에 依한 秩序破壞 行爲를 許容할 수 없음을 宣言한바 있다.

이와같이 韓半島를 圍繞한 4大強國의 態度가 緊張緩和 支持趨勢으로 轉向되고 있다는 事實은 南北關係의 變化를 刺戟시켜주고 있는 与件 提示와 直結되고 있다 하겠다. 말하자면 韓半島에 對한 4大強國의 關心事는 條件에 따라 各己 相異하다고 보겠지만 最小 緊張을 抑止하고 平和指向的인 姿勢定立의 緊要性を 強調하고 있다는 点에서는 一致된다고 봄이 妥當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看過해서는 안 될 問題는 비록 韓半島에 대한 美·日·蘇·中共의 基本態度가 平和指向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南北韓에 열키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實際問題間的 罅이 尙存하고 있기때문에 그들이 追求하고 있는 政策 또는 戰略上的 差異가 많다는 點이다. 따라서 南北關係에 對한 소련의 態度와 그 底意를 理解함에 있어서는 觀點에 따라서는 各己 見解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大体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先行條件이 隨伴된 基礎위에서 그 具體的인 內容이 檢討되어져야 한다고 보겠다. 그 첫째條件은 緩衝地帶로서의 韓半島의 重要性 是認이고, 둘째는, 特히 美·蘇關係에서 본 韓半島의 位置가 暫定的으로 重要한 地域으로 看做하고 있으며, 셋째는 對 中共經濟政策面에서 본 韓半島問題이고, 넷째는 日·中共政策의 變化趨勢에 따른 소련의 態度問題이며, 다섯째로 民族的同質性에 立脚한 南北接觸의 狀況進展에 따라 惹起되어질 條件이다. 이와같은 다섯가지條件 들을 보다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첫째條件에서 소련은 韓半島를 歷史的으로나 또는 地政學的인 見地에서 戰略上 重要地域으로 認定하고 있는바, 韓半島問題에 관한 限 량의 不均衡狀態에서 초래되어질 不安要因의 惹起를 事前에 抑制 또는 沮止하기 위해서도 韓半島를 緩衝地帶化 시켜 余他 強大國과의 政治的調整上의 條件으로 提示하게 될것이 確實視된다.

둘째條件에서, 美·蘇의 和解政策과 關聯시켜 볼때 韓半島는 결코 廢外視될 수 없는 存在이다. 그것은 韓·美와 蘇·北韓이 아직까지도 同盟關係라는 位罅에서 離脫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雙方 同盟間에 위협적인 事態惹起를 모두 願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現時點에서 美國의 對韓支援과 蘇聯의 對北韓支援이 縮少되고는 있지만 南北關係 事態의 變化 如何에 따라 流動性과 伸縮性이

內包된 政策的配慮의 可能性이 있음을 全적으로 排除 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소련의 立場에서 볼때 韓半島를 금후의 對美交涉上 重要한 地域으로 看做하고 있다고 보겠다.

세제條件에서 소련이 韓半島를 拋棄 내지는 讓步할 수 없는 理由中的의 하나가 對中共關係의 惡化로 因해 派生되고 있는 相互 競合關係라고 하겠다. 소련은 최근 幾年사이에 中共의 北韓과의 接近이 활발해지고, 특히 이베올로기面에서 北韓의 對中共偏重 傾向의 징조가 濃厚해 짐에 따라 格別한 神經을 쓰고 있음이 事實이다. 뿐만아니라 中共의 對美·對日政策의 好轉으로 말미암아 惹起되고 있는 環境變化등을 감안해서라도 中共견제를 위한 最大限의 戰略摸索이 不可避해지고 있음을 自認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소련으로서 中共의 對韓半島영향력을 弱화시키기 위해서도 北韓과의 關係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은 물론 對美·對日關係의 調整을 통해서라도 中共을 견제하려는 政策的代案 提示를 하게 될것인바, 이경우 韓半島에 있어서의 中·露의 對立과 競合關係는 南北接觸을 沮害시키는 要因으로 變質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겠다.

네제 소련의 對韓半島關与에 있어서 또다른 하나의 重要한 條件은 日·中共政策과 關聯된 것이다. 其實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은 日·中共政策 如何에 따라 決定線이 設定될 수 있다고도 하겠다. 그것은 아시아地域에 位置하고 있는 日本이나 中共이 異質的인 余他 強大國의 아시아介入을 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可能한 限 아시아에서의 主導的位置에서 政治的調整 役割을 試圖하려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地理的으로 隣接해 있는 韓半島에 대한 日·中共의 關与는 歷史的으로보나 現在 露呈되고 있는 狀況 進展의 趨勢를 감안할때 보다 積極性을 띠게 될것이 確實視되는바,

이 경우 소련의 韓半島關與의 比重은 相對的으로 낮아질 可能性이 있다고 보아진다.

다섯째條件에서, 南北接觸과 소련態度와의 相關關係는 緊張緩和와 平和指向的인 世界의 趨勢를 소련 스스로가 肯定的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限 相衡되지 않는다고 봄이 妥當하겠다. 卽 南北韓 自主·平和 統一의 原則的인 합의에 대해서 소련은 公式的으로 論評을 하지 않고 있으나 찬성 하리라고 期待된다. 그러나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소련이 注視하고 있는 것이 中共의 動態인바 그 變化 如何에 따라 소련의 南北韓接近 態度亦是 달라질 것이 予想된다.

以上 指摘한 다섯가지의 條件들은 소련이 南北關係에 미칠 影響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先行與件이며 또한 現實狀況에 立脚한 假定인바, 이에 準하여 다음과 같이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이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을 상정 시켜 보려고 한다.

첫째 南北韓接觸의 變化動因의 主된 契機가 美·蘇·美·中共間의 協商을 前提로 한 和解政策의 現實化에 있는 限, 行動主体의 一貞인 소련의 政治的調整 役割에도 制約性和 限界性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소련의 對韓半島問題 關與에 있어서도 原則的으로는 余他 強大國간의 和解와 緊張緩和라는 基本線에서 離脫하지 않을 것이며, 南北韓 接觸의 動機와 目的에 대해 肯定的인 態度를 갖게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같은 姿勢定立의 底意에는 強大國間의 力学均衡關係가 얼켜 있기때문에 소련으로서도 韓半島를 圍繞한 對美·對日, 特히 對中共관계의 相互作用을 調整키 위한 政治的인 操作性을 考慮하게 될 現實問題와 發展될 問題들이 介在되고 있다고 보는바, 이것은 南北韓의 接觸過程에 있어 소련의 影響도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示唆해 준다.

둘째 韓半島를 緩衝地帶 또는 極東前哨地로서의 重要性을 再確認하고 있는 소련은 韓半島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願치 않고 있으며, 可能的 限 現狀固定를 바라고 있는바, 이경우 소련에 依한 北韓의 南侵을 위한 革命支援의 可能性은 排除되리라고 보지만 이와같은 外在的作用은 南北韓의 統一을 沮害시키는 要因이 될 수도 있겠다.

세계 平和共存原則을 바탕으로 한 美蘇의 超強 核保有國은 緊張緩和의 趨勢에 따라 軍事力의 下向調整作業에 積極性을 띠고 있음이 現狀況이다. 이것은 本來 政治的目的을 위해 創設된 軍事力을 制限 내지는 減縮시켜 世界の 緊張度를 弱화시키기 위한 政治的 調整에 있어서의 美·蘇 位置의 重要性 強調를 意味한다. 이런 視點에서 美·蘇兩國이 韓半島의 緊張解消를 위한 調整役割은 南北對話 推進의 뒷받침이 된다고 본다. 말하자면 南北關係의 先行條件인 戰爭 없는 平和의 論理를 合理化 시킴에 있어 美·蘇의 平和破壞 抑止作用은 아직도 尚存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바 北韓의 「革命」과 「戰爭」을 拋棄케 하는데 큰 效果가 있다는 것이다.

네째 소련의 南北關係에 대한 영향력 行使에 있어 制約的인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은 中共의 存在이다. 앞서 指摘한바와같이 韓半島에 있어서 中·蘇對立 현상은 相互견제를 위한 政治的 操作으로 열켜 있다. 中共은 表面的으로는 對美·對日交涉을 통해 南北韓의 平和的 接近을 言及하고 있지만 實際적으로는 北韓과의 積極的인 紐帶強化를 통해 北韓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弱化 내지는 除去하려는 傾向이 濃厚해지고 있으며, 반면 소련은 對中共 견제

強化策의 一環으로 아시아諸國과의 關係正常化를 활발히 推進시키고 있는바, 特히 最近에는 소련政府 機關紙인 「이즈베스찌아」(1972年 6月 21日字)를 통해 처음으로 ASPAC에 대한 肯定的인 論評을 하고 있음은 注視된다. 즉 同紙에서 「政治体制의 區別없이 모든 아시아國家를 參加시켜 순수한 經濟的, 文化的인 機構로 轉換하려는 새로운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에 있어서 新風의 하나이다」라고 한것은 韓國에게는 물론 余他 아시아諸國에게 대한 고무적인 論評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一聯의 事例만으로서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을 樂觀的으로 評價한다는 것은 時期尚早라고 하겠지만 最少限 中共의 韓半島関与 作用이 強하면 強할수록 相對的으로 소련의 對中共관계作用도 積極性을 띠게 될 것이 確實하다. 이와같은 中·蘇間의 相衝된 현상은 오히려 南北關係를 自律的으로 推進시킴에 있어 「失」보다는 「得」이 앞선다고 判斷된다.

마지막으로 南北韓의 接觸에 對한 소련의 態度는 現時点에서 보아 肯定的이라고 보겠다. 그것은 韓半島를 圍繞한 4強國의 力学關係調整을 위한 相互間의 견제작용으로 보나, 또는 南北韓 自体의 平和的인 接近을 위한 努力이 進展되어가고 있다는 事實은 결코 소련에게 不利한 与件이 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V . 結 論

南北韓의 接觸에 대한 소련政府의 公式的인 態度表明이 없는 現時點에서 소련의 反應을 分析 評價한다는 것은 時機尚早라고 하겠다. 그러나 第2次南北調節委員會에서의 討議結果에 관한 平壤報道를 間接 인용한 11月 5日字 「프라브다」紙에 記載된 內容을 감안할때 南北關係에 對한 소련의 反應이 流動的이라고 보겠지만 한편 否定的이라고 判斷되지는 않는다. 즉 同紙에서 「同 協定은 南北間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軍事충돌을 방지하고 南北間 對外政策에서 合意된 조치들을 취하는 문제도 解決해야 할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음은 물론 南北韓의 對話에 對한 公式的인 態度表明은 아니지만 金후 韓半島內에 突變事態가 惹起되지 않는 限 소련의 態度는 肯定的인 立場을 取하게 될 것이 豫상된다. 이와같은 豫측의 上정에서 소련은 韓半島에 對한 美·日·中共의 움직임에 對해 第1次的으로 神經을 쓰게 될것임은 明若觀火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소련이 對中共 견제를 위한 戰略推進의 一環으로 一方的인 對北韓支援을 통해 南北韓간의 接觸을 방해 하려는 行動의 決定은 앞서 指摘한바 諸與件으로 보아 하지 않으리라고 보아진다.

要컨대, 強大國間的 現實的인 政治가 이태올로기를 떠난 世界問題의 實用的인 態度로 接近되고 있는 以上 소련의 南北關係에 對한 態度의 可變性도 韓半島를 圍繞한 美·日·中共과의 相關關係속에서 豫정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南北問題가 強大國들에 依해 얽혀들지 않도록 하기위한 自律的인 意志와 行動이 先行되어 져야 함을 再認識해야 한다.

中·蘇紛爭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延世大學校法政大學

教授 李 基 鐸

中·蘇紛쟁이 南北韓國關係에 미치는 影響

李 基 鐸

1. 中·蘇紛쟁의 歷史的 性格

國際間的 關係라는 觀點에서 볼 때 「國際秩序」라는 것은 本質的으로 「領土」的인 概念을 뜻하는 것이다. 政治的單位의 領域을 區劃하는 「線」을 넘을때에는 이는 곧 侵略을 意味하며 開戰의 事由가 되는 것이다.

中·蘇紛쟁을 中·蘇國境紛쟁 혹은 中·蘇領土紛쟁이라고 할 때 이는 單純한 「國境問題」가 아니라 本質的으로 「國家紛쟁」에 屬하는 일이며 따라서 中·蘇紛쟁에는 「國境問題」는 없으며 中·蘇間의 「힘의 均衡」이라는 國家間的 關係의 本質인 國家間的 問題가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中·蘇間의 國家關係를 歷史的으로 考察할 때 이를 쉽게 把握할 수 있다. 事實上 中·蘇國家關係이전의 처음 中國과 露西亞가 接하게 된 淸·露兩帝國間의 關係를 보면 最初의 國境條約인 「네르친스크」條約(1689年), 「惟克圖」條約(1727年), 「璦琿」條約(1858年) 및 오늘의 蘇聯의 極東露西亞를 地理的으로 完成한 「北京」條約(1860年)이 모두가 中國과 蘇聯間 國境紛쟁의 所産에 不過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中·蘇紛쟁 歷史는 共產「이데오로기」로 한때 묶을수 있었던 7·8年間 보다는 훨씬 긴 紛쟁史의性格을 띠고 있음을 看過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추상적인 「이데오로기」로 處理하

기에도 너무나 큰 國家紛爭에 屬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데오로기」와 또 無關하지 않은것이 오늘의 中·蘇國境의 劃定에서 모든 國境條約이 「不平等條約」에 屬하며 特히 「北京條約」은 「레닌」조차 시인한 代表的 「不平等條約」에 屬한다. 따라서 中·蘇紛爭은 國家利益의 本質的인 紛爭性格을 띠고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서 把握되어야 하리라 본다.

本論에서 論할 中·蘇紛爭이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論함에 있어선 이러한 中·蘇紛爭의 歷史의 性格을 前提로 하고서 論할 일 이라고 본다.

첫째 中·蘇紛爭은 單純한 國境修正으로 끝날 수 있는 國境紛爭은 아니며 中·蘇間의 根本的인 國家紛爭이다.

둘째 國家紛爭이라는 觀點을 取할 때 그 性格으로 보아서 相當한 期間동안 紛爭이 持續될 것이며 國家的힘의 均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尙尙 相當한 時間이 必要하다. 그理由는 極東「시베리아」와 中共間의 「힘의 均衡」이란 意味속에는 核武器體系를 비롯한 人口의 均衡等의 均衡要素가 安定되기에선 너무 그 時間的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째 따라서 中·蘇紛爭이 앞으로 韓半島에 끼칠 影響은 相當한 期間에 걸쳐게 될 要因과 要素로 남게 될 것이라는 點이다.

事實上 오늘의 世界的緊張緩和의 根拠는 中·蘇紛爭이라는데 그 緊張緩和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東·西歐洲安保會議」를 中心한 歐洲의 緊張緩和라던가 美·中共間의 「아시아」的 緊張緩和도 中·蘇紛爭없이 생각할 수 없는 問題이다.

本「테제」에서는 주로 「中·蘇紛爭」이 北韓에 미친 影響과 이것이 韓半島全體에 어떻게 投影되며 또 南北關係에 投影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에 그 焦點을 두고論하겠다. 「中·蘇紛爭」自體의 性格은 前述한 바와 같이 相當한 期間 和解의 可能性이 없다는 大前提로 끝낸다.

2. 中·蘇紛爭과 北韓

北韓이 北韓의 背後에 놓여있는 蘇聯과 中共의 三角關係에 있어서 그의 첫「딜렘머」를 느끼기 시작한것은 무엇보다 韓國動亂을 契機하여서였다고 볼수있다.

事實上 北韓·蘇聯·中共의 三角關係가 成立한것이 中共政權樹立의 해가 1949年 韓國動亂전해였음으로 韓國動亂이 三角關係를 形成하는 첫段階였다고 할수있다.

北韓(金日成)은 韓國動亂期에 있어서의 蘇聯 態度에서 不滿을 느낀것은 蘇聯은 表面上 또는 直接的인 軍事介入을 避하면서 다만 國際舞臺에서 北韓·中共을 支持하긴 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側面的支援에 지나지 않았으며 消極的인 態度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動亂解決時에 蘇聯이 보여준 巧好한 姿勢는 北韓(金日成)의 不滿을 유발하기에 充分하였으리라 추측할수있으며 이러한 要因이 後에 中·蘇論爭初期에 北韓으로 하여금 中共에 기우러지도록 促進시킨 하나의 要因이라고 볼수 있다. 事實上 「메가더」指揮下에 「유엔」軍이 仁川을 上陸하여 北進할時에도 蘇聯은 軍事的支援을 하지않았으며 完全히 敗戰으로부터 金日成을 구해준것은 中共이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韓國動亂을 契機로 經驗한 北韓·蘇·中共의 三角關係에서 不可避하게 「自体意識」 또는 一種의 民族意識을 強要 받을수밖에 없었다고 볼수있다.

動亂後 北韓이 党路線을 밝힌 1955年 12月 28日의 「党宣傳선동일군」들 앞에서한 연설인 「사상사업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고 主體를 確立하는데 대하여」에서 蘇聯에 대한 反應

이 充分히 表示되고있기도하다. 그의 演說을 몇句節 引用하여보면 「우리는 어떤 다른나라의 革命도 아닌 바로 朝鮮革命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당 사상사업의 主体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思想事業을 반드시 朝鮮革命의 利益에 복종시켜야 합니다.」고 말하고 있다. 또 「朝鮮革命을 하기위하여서는 朝鮮 歷史를 알아야하며 朝鮮의 地理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인민학교에 가보니 사진을 걸었는데 마야폼스끼. 뷔슈킨등 전부 외국사람들 뿐이고 조선사람이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교양해서야 어떻게 민족적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고 突吐하고 있다. 아마도 이모든것이 韓國 動亂에서 얻은 經驗에서 나왔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수있다.

아마도 北韓(金日成)은 蘇聯과 中共이라는 最大의 同盟國임을 認識하면서도 動亂을 통하여 韓半島의 「軍事統一」을 實踐하는데 三角關係가 그리 간단한 問題가 아니며 外交政策上으로도 戰時外交를 통하여 커다란 「딜렘마」임을 느낀 시초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事實上 韓國動亂後 經濟復興期에 해당하는 經濟3個年計劃(1954~1956年) 및 經濟5個年計劃(1957~1961年)동안은 蘇聯과의 矛盾은 表面化하지 않았으며 經濟的關係에 있어서 順調로운 편이었다.

- 中·蘇論争의 開始와 北韓의 反應 -

中·蘇論争에 있어서 北韓의 反應은 여러가지 態度를 取하면서 表示되었다고 볼수있다. 北韓의 態度를 몇가지로 分類하여보면 「機會主義」·「中立主義」·「孤立主義」 또는 「主体思想」으로 表示되었고 아니면 한쪽에 加담하는 「一方主義의 態度를 取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두가지의 態度를 交替하면서 取하기도하였다.

中·蘇論争이 公開되기 시작한것은 1960年 初였다. 當時는 「말스·레닌」主義理論鬭争形式으로 表面化되었으며 論争의 原因이나 時期等은 은폐되어 있어 外部에서는 推測할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나 1963年에 中·蘇兩國 共產黨間에 書簡이나 聲明書形式으로 相對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暴露戰術을 取하였음으로 過去에 감추어졌던 새로운 事實들이 차례로 明白히 되었다.

그러나 中·蘇論争이 公式化한 1963年까지에는 이미 北韓·中共·蘇聯의 三角關係에 몇가지의 큰 「딜레마」를 던져주고 있었다.

첫째가 「후르시초프」의 「스타린」格下를 통한 「個人崇拜」에 대한 攻撃이었다. 「후르시초프」의 「個人崇拜」에 대한 攻撃은 金日成에게 있어서 난처한 立場에 처하게 하였다.

金日成은 「個人崇拜」에 言及하여 「스타린」은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偉대한 指導者中 하나였다고 말하고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그의 影響은 偉대한바 있다고 찬양하고있다.

그러나 또한편 조심스럽게 「스타린」을 中心한 「個人崇拜」論議는 蘇聯共產黨內部問題라고 회피하고 있기도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論議였다. 1959年9月 「후르시초프」의 訪美는 「平和共存」論議에 대한 中·蘇論争을 激化시키고 있었으며 이 「平和共存」論議는 金日成에게 있어서 크나큰 「딜레마」의 하나였다. 「平和共存」은 事實上 金日成의 韓半島軍事統一原則과는 正面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中共은 즉각적으로 「후르시초프」의 訪美를 非難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후르시초프」의 訪美가 國際緊張緩和를 위한 蘇聯의 誠實한 努力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平和共存思想의 勝利라고 傳하였다.

이 時期에 있어서 金日成의 立場은 多分히 「機會主義」的인 態度를 엿볼수있다. 비록 中·蘇間 몇가지 論争의 발발에 不拘하고서 北韓은 「機會主義」的 立場을 取함으로서 마침내는 中·蘇論争을 克服하는데 일단 成功하여 1961年7月6日 蘇聯과 北韓間에 「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을 체결하였으며 金日成을 團長으로하는 北韓의 Top class의 代表團이 參席하였다.

한편 金日成과 北韓代表團은 「모스크바」로부터 北京에 直行하여 7月11日 똑같은 條約을 이번에는 中共과 체결하였다.

7月15日 平壤에 돌아온 金日成은 市民集會 演說에서 蘇聯과 中共 雙方을 絶對의平等의 位置에서 取扱하듯이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말하고있다. 金日成의 「機會主義」的인 조심성이 比較的成功的인 例라고 볼수있다.

셋째의 「딜렘머」는 中·印國境紛争을 契機하여서였다. 1959年에 발발한 中·印國境紛争은 金日成에게 큰 「딜렘머」를 안겨주었다. 특히 蘇聯이 中·印國境紛争에 中立의路線을 取하였으며 나아가서는 中共의 武力行使를 非難하기에 이르면은 北韓에게 理念的 「딜렘머」를 갖여다 주었다.

蘇聯이 中·印國境紛争에 中立의態度를 取한다는 말속에는 앞으로 北韓이 軍事統一을 시도하거나 韓國과 武力충돌이 發生할時도 蘇聯이 北韓에 軍事的援助를 拒否할 것이며 一般的인 中立의立場을 取할지도 모른다는 不安을 주게된것이었다고 볼수있다.

이러한 蘇聯의 反中共的인 立場과態度에 대하여 처음으로 간접적으로나마 中共側에 서서 「후르시초프」의 中·印國境紛争에 대한 態度를 非難하였다. 北韓은 公式的立場에서 印度政府는 國境上에서의 平和를 회복하려는 中共政府의 努力을 受諾해야한다고 發表하였다.

北韓이 中·印國境問題에 대해 이러한 立場을 取하자 蘇聯은 즉각적으로 經濟的보복을 하였다. 1959年과 1960年사이에 産業機械類의 船積을 대폭 감축시켰다.

아마도 中·蘇紛爭에 있어서 直接的인 손실을 입기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의 「딜레머」는 역시 1962年 「큐바」事件은 아마도 中·蘇의 關係가 惡化하는 가운데서 北韓의 「機會主義」가 理論上으로나 實際上 通할 수 없는 새로운 試練에 直面한 轉換點이었다고 볼 수 있다.

「큐바」事件이 발발하자마자 北韓은 美國을 侵略者라 非難함과 同時에 蘇聯의 「二重의 行爲」에 대하여 警告를 發하였다.

「큐바」事態라는 中·蘇論爭의 基本的 分裂에 直面하여 北韓은 이미 「機會主義」의 立場을 固守할 수 없게된 立場에 놓이게 되었다.

「큐바」事態를 계기로 金日成은 「후루시초프」를 直接的으로 攻撃하기 시작하였다. 北韓(金日成) 으로서는 蘇聯이 第一의 敵으로 간주하고 있는 美國과 妥協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큐바」事件을 頂點으로 하여 北韓은 中·蘇論爭中 어느 한쪽에 가담을 해야 할 決定을 내려야 할 때였다.

事實은 朝·蘇同盟條約과 朝·中同盟條約의 朝印이 北韓의 中·蘇紛爭에 대한 態度에서 分岐點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分岐點으로 하여 北韓은 中共側에 기우러지기 시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以外的 「딜렘머」에는 理念的인 面에서 「유고」의 「修正主義」問題가 있었다. 「후루시초프」가 「유고」와 外交政策上的 再調整을 試圖하려고 할때 北韓의 代변인은 「티토修正主義」者等에 대하여 맹공격을 加하였다. 當時 蘇聯最高會議幹部會議長이었던 「브레즈네프」가 「유고」를 訪問하고 있는 中임에도 不拘하고 平壤放送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背信者이며 美帝國主義의 忠實한 造從者인 「티토」修正主義一派는 「유고」를 政治的·經濟的으로 帝國主義의 付屬物化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 北韓 中共을 支持 (一方主義의 採択) -

以上 論한 몇가지의 金日成體制에 부닥친 「딜렘머」는 結局 克服하지 못하고 中共支持라는 「一方主義」를 取하기에 이르렀다.

1963年 6月 6日부터 29日에 걸쳐 北韓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議長 崔庸健은 劉少奇의 招請을 받고서 中共을 親善訪問하였다.

公式歡迎會席上에서 劉少奇는 北韓勞動黨의 功績을 致賀하면서 「朝鮮勞動黨은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을 지키며 現代修正主義와 조금도 妥協없는 鬭爭을 하여 왔다. 中國·朝鮮兩國人民의 鬭爭의 友情과 偉大한 團結은 帝國主義에 反對하는 共同鬭爭中 血肉으로 굳게하며 맑스·레닌主義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團結은 어떤 폭풍이 닥쳐오더라도 타개하여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崔庸健은 이에 對하여 「오늘날 兩國人民은 맑스·레닌主義의 깃발을 높이 들고 緊密히 團結하며 帝國主義反對·修正主義反對의 鬭爭에 단호하게 展開하며 世界平和와 國際革命事業에 貢獻한다.」고 답사를 함으로서 北韓은 中·蘇論爭의 한가운데서 各國共產黨의 多數가 蘇聯을 支持하고 있을때 中共의 立場을 支持할 것이다.

北韓이 이러한 中共支持라는 「一方主義的立場을 取한 代價는 컸다. 그 代價中 가장 컸던 것은 北韓이 1960年8월에 採択하였던 「經濟7個年計劃」과 關聯된 것이었다.

蘇聯은 「經濟7個年計劃」에 對한 支援을 約束하였었다. 또한 이 支援을 위한 北韓과의 協定도 체결하였으며 1961年~1967年間의 「經濟7個年計劃」全期間을 커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經濟7個年計劃」은 거의 失敗로 돌아가 버렸다. 勿論 그 主된 理由는 金日成이 中·蘇紛爭에서 「經濟7個年計劃」의 初期인 1963년에 中共에 全的으로 加담함으로써 「후루시초프」는 上記 「經濟7個年計劃」에 對한 支援을 拒否한데서였다.

이러한 經濟援助중단은 순수한 經濟面뿐만 아니라 1963年 蘇聯은 對한 蘇聯製전투기 500餘臺에 必要로 하는 부속품과 개소린의 供給을 중단하였다. 北韓은 事實上 防衛力을 잃게 되었다. 그後 「經濟7個年計劃」은 失敗하여 3年을 延長할 수 밖에 없는 運命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北韓과 蘇聯과의 冷却狀態중에서의 応酬中 1964年8月18日 「쁘라우다」는 平壤에서 開催된 第2回아시아經濟討論會에 對한 排判論文을 掲載하고 北韓을 위시하여 蘇聯의 經濟援助를 받은 나라들에 對하여 蘇聯의 援助에 關해 再認識하도록 호소하였다.

이에 對하여 同年9月7日 「勞動新聞」은 「왜 平壤經濟討論會의 成果를 중상하려는가?」라는 論說을 掲載하여 反駁하고 나섰다.

그中에서 흥미있는 句節은 「蘇聯은 國際市場價格보다 훨씬 높은 價格으로 設備과 鋼板材를 위시한 資料를 주고서 그대신 北韓으로부터 數十噸의 金과 多量의 非鉄金屬과 原料를 國際市場價格보다 훨씬 싼 價格으로 가져 갔다」고 反駁한 대목은 솔직한 面이 있

다.

그러나 事實上 北韓體制가 中·蘇紛爭에서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후루시초프」의 失脚이었으며 「후루시초프」의 失脚으로 「經濟7個年計劃」도 進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5年2月21日 「코스이긴」을 團長으로 하는 蘇聯代表團이 越盟으로 부터의 歸路中 平壤을 訪問하고 金日成을 비롯 黨·政府首腦와 會談을 갖았다. 14日字聲明에서 朝·蘇相互援助條約의 重要性, 南北韓의 外國干涉없는 平和的統一, 反帝國主義와 平和共存政策의 推進, 越盟支援과 越南反美鬪爭의 支持,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團結을 強調하였다.

이를 契機로 하여 北韓과 蘇聯間의 關係가 急速度로 好展方向으로 進展하기 시작하였다.

이時期로 부터 다시 「中立主義」的 立場을 取하는 듯한 印象을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中·蘇紛爭에서 北韓의 「딜렘머」를 克服하려는 努力은 1966年8月12日의 「노동신문」社說에 실린 「自主성을 찾자」라는 提目과 그內容은 어떤 意味에서 또하나의 轉換을 意味하며 「孤立主義」的 傾向을 띄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論說의 主要內容은 첫째 자기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둘째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셋째 맑스·레닌주의는 행동의 지침이다. 넷째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민족적 긍지를 갖어야 한다. 여섯째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일곱째 자주성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 여덟째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반제국주의 공동투쟁을 하자 等이다.

中·蘇紛爭에서 얻은 北韓의 教訓은 結局 「自主性」이라는 基本的 原理였다.

그러나 이러한北韓의 「孤立主義」는 다시말하여 中·蘇 어느 쪽에도 屬하지 않으며 独自の 길을 걷게된 金日成의 「自主路線」은 韓半島에 緊張緩和가 아니라 平和의 威脅으로 表現되었다.

北韓은 中·蘇紛爭으로부터 解放됨으로 해서 蘇聯의 經濟的 壓力이나 中共의 軍事的 壓力으로부터 벗어나 積極적으로 中·蘇를 活用하는 方向으로 나갔으며 「自主와 主体」라는 利益속에서 몇가지 利點을 発見하게 되었다. 첫째가 內政不干渉이라는 點 둘째, 獨立性을 찾게 되었으며, 셋째, 同盟國인 中·蘇에 對한 機先을 잡을수 있게 되었다는 點이다.

특히 中·蘇의 北韓에 對한 接近政策에서 機先을 잡은 北韓은 独自の 獨立성과 孤立主義로 韓半島에서 独自の 모험을 감행한 것이 「프에브로」事件과 「EC-121」격추 사건이었다.

이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또하나의 背景에는 中·蘇紛爭에서 機先을 잡은 北韓은 中共과 蘇聯으로부터 똑같이 軍事援助를 획득할 수가 있었으며, 오늘의 韓半島의 軍備競爭의 큰 契機가 되었으며 이를 契機로 하여 1968年의 「프에브로」事件과 「EC121」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意味에서 中·蘇紛爭에 對한 北韓의 「딜렘머」를 이 모험을 通하여 南侵과 結付시켜 불러는 二重的 意圖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인것이다.

그러나 事實上 「프에브로」事件이나 「EC121」격추사건에서 보듯이 蘇聯은 이 地域에서 6.25戰爭과 같은 모험의 추구는 기피하고 있었다. 또한 敵對行爲가 다시 발생할때 美國이 核을 使用할지 모른다는 것을 蘇聯은 우려하고 있었으며, 韓半島에서 모든 緊張行爲를 조심스럽게 기피하고 있음을 北韓(金日成)은 認識하게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事實上 蘇聯의 韓半島政策과 北韓의 統一政策은 一致하지 않고 있음을 철저히 認識하였을 것이다.

金日成의 「軍事統一政策」과 蘇聯의 「現狀維持政策」即 韓半島統一이 蘇聯의 利益이 되고 있지는 못하며 軍事的 모험의 가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蘇聯이 現在 強力히 進行시키고 있는 對獨政策은 金日成이 極히 忌避하여온 「現狀維持」(Status quo)나 「凍結政策」으로 表現되고 있으며, 理念的 面에서도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은 金日成의 革命的 情勢와도 一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要는 國際共產主義陣營에 있어서 中·蘇間의 紛爭激化는 蘇聯이 부르짖고 있는 「平和共存」路線은 變함없이 持續되어 오고 있으며, 金日成이 提唱하고 있는 「祖國統一, 朝鮮革命」(民族解放鬪爭)에 대한 支援도 「平和共存」路線의 範圍內에서 實踐될 수 밖에 없으며 明白한 「限界」가 있다는 것을 「孤立主義」期를 벗어나면서 北韓이 認識한 點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 「孤立主義」時期를 거치면서 北韓이 中·蘇紛爭의 本質을 어렴부시나마 把握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처한 것이 다름 아닌 中·蘇紛爭에 말려들 수 없다는데서 한층 더 나아가 中·蘇紛爭을 대처해 보려했던 것이 「主體」思想이나 「自主路線」으로 表現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唯一」思想도 中·蘇間 理念的 分裂에서오는 主體的 混亂을 避하기 爲하여 그 理念的 中立성과 求心點을 自体에서 찾으려한데서 나온 것으로 把握될 수도 있다.

「主體」思想은 結局 中·蘇紛爭의 틈바구니에서 얻은 經驗의 政

治的 結算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一方主義」를 取하여 北方三角關係를 解決하려 하였으나 中共을 支持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文化革命當時 金日成에 對한 直接的人身政策을 어떻게 消化해야 할 것인가는 틀림없이 北韓에게는 심각한 問題로 中·蘇紛爭의 틈바구니에서 어디로 그 向方을 찾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졌을 것이었다.

1970年11月14日 「朝鮮勞動黨」第5次黨大會에서 北韓의 經濟的 目標가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展開할 것임을 強調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中·蘇紛爭에서 完全한 「中立主義」를 宣言하며 「北朝鮮民族主義」를 宣言한 路線에는 金日成이 中·蘇紛爭의 結末이 없음을 깨닫고서 「프로그래틱」한 政策을 取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金日成은 變化하는 國際情勢를 現實的으로 再評價한 것이었으며 北韓獨立性을 찾으려 한데 그 目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金日成은 「美帝國主義」에 反對하는 中共의 立場은 支持하나 「蘇聯社會主義」帝國政策에 對한 中共의 政策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오로지 北韓의 經濟를 위하여 蘇聯과의 經濟的 技術的 協力을 획득하려는데 급급할 뿐이었다.

1970年4月 周恩來의 平壤訪問은 事實上 文革以來 北韓과 中共間의 關係惡化가 和解로 닦아섰다는 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中·蘇間의 계속적인 惡化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中共과의 和解가 蘇聯과의 不和를 意味하지는 않았다. 周恩來의 平壤訪問中에도 蘇軍總司令官「자하로프」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또한 1971年2月3日에는 蘇聯과 1971~1975年에 걸치는 「支 払 및 物資引渡協定」에 署名하고 있다. 이번에는 中·蘇紛爭에

「엄격한 中立」을 取하면서 1961年~1966年間に 보여주었던 中共 支持라는 「一方主義」나 그 前後의 「機會主義」的 立場을 取하는 反復은 엄격히 避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主体」를 기반으로 한다는 「經濟6個年計劃」(1971~1975年)에도 事實上 蘇聯이나 中共의 支援없이 成功할 수 없다는 것은 平凡한 真理임을 잘 알고 있으며 「엄격한 中立主義」를 取한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은 「엄격한 中立主義」를 通하여 北韓立場에 北韓, 蘇聯, 中共이라는 北方三角關係에서 어느程度의 「安定」을 갖어다 준 것이 事實이며 이를 기반으로하여 對南政策에 새로운 攻勢를 펼 機會와 힘을 갖게 되었다. 對南政策의 새로운 次元은 다름아닌 「對南平和攻勢」의 展開였다.

그러나 北方三角關係에 決定的인 轉換點을 갖어다 준것은 역시 1972年度의 「닉슨」의 中共訪問이었다. 事實上 「닉슨」의 中共訪問은 北方三角關係의 基本構造를 本質적으로 變化시켜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理念面에서 事實上 中共의 強力한 論理展開에 의지하였던 中共이 中國의 專統的인 「李鴻章」式 外交패턴을 따르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北韓이었다. 충격을 받았다함은 「닉슨」의 中共訪問에 대한 北韓側의 公式的 見解表明이 밝혀지기에는 相當한 時日을 費하였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公式的 見解는 이미 「닉슨」中共 訪問이 發表되었을때 金日成 스스로가 「시아누크」환영군중대회에서 밝혔듯이 「결국 닉슨은 지난날 조선전쟁에서 패배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판문점에 횃기를 들고 나오듯이 베이핑으로 횃기를 들고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北韓은 基本的인 北韓, 蘇聯, 中共이라는 北方三角關係에서 完全한 「딜레마」에 直通했음을 코메디한 「白旗論」으로 表示되었을뿐인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

이후 事實上 北韓은 이 「딜레마」를 對南政策의 大轉換이라는 새 南北關係로 發展하게 되어 오늘 우리가 現實적으로 보는 現時點에 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3. 中·蘇紛爭이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 南韓의 反應과 影響 -

北韓이 中·蘇紛爭의 惡化속에서 論한 바와같이 激烈한 反應과 影響을 받은것에 比해서 韓國의 反應은 緩慢한 편이었다.

韓國이 中·蘇紛爭初期에 보여준 一般的인 反應은 韓國動亂과 冷戰체制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反應의 性格은 中共과 蘇聯은 同一한 共產體制임으로 근소한 理念論爭을 展開하고 있기는 하나 언젠가는 中·蘇가 妥協할것이라는 一般的 觀測이었다. 共產政治體制에 屬하는 國家間에는 基本的差異가 없다는 論議였다.

아마도 專問機關이나 一般에서 中·蘇紛爭의 深刻性이 認識되기 시작한것은 突然인 1969年3月2日에 「우수리」江의 「다만스키」섬(珍寶島)에서 中·蘇가 軍事衝突을 하면서 그以來 8月까지 계속적으로 「우수리」江이나 「아무루」江上에서 中·蘇兩軍이 武力衝突한 時期에서 부터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中·蘇紛爭의 影響이 一次的으로 北韓의 問題로서 南韓 으로서는 直接的인 영향전에 屬하지 않음으로써 었는지 모를일이다.

그러나 中·蘇紛爭이 中·蘇兩國의 軍事力 衝突以後에는 南韓에 두가지 間接的 影響을 끼쳤다고 본다.

하나는 北韓의 肇後에서 中·蘇軍事力의 衝突은 相對的으로 南韓에 대한 軍事的 壓力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것이며

둘째는 最小限 南韓과 北韓의 對立이라는 政治的 觀點에서 北方三角關係의 政治的對立에서 南韓에 「心理的」인 「安堵感」과 一種의 自信을 던져주었다는 點일 것이다.

北韓의 北方境界에서 中·蘇가 武力衝突이 可能하다는 點을 確實히 北韓이 南部境界線인 38線에 대한 現狀에 軍事的側面이 아닌 政治的關心을 갖게한 動機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中·蘇紛爭이 北韓에 미친 「콧선」이 間接的으로 南韓에 영향을 끼침으로 첫째는 軍事的壓力의 경감과 政治的인 心理的壓力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8年의 「프에브로」事件 및 「EC 121」격추사건을 中心한 北韓의 中·蘇紛爭을 「孤立的」이며 「38線의 緊張」을 통하여 中·蘇紛爭에 対応하려던 政策이 失敗한후 1969年의 中·蘇武力紛爭은 「38線의 緊張」이 아니라 「現狀維持」로 發展하는 계기의 한 要素가 되었고 이러한 北韓의 關心轉換이 南韓에 「心理的」인 안도를 주게 된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根本的인 轉換을 南北韓關係에 直接·間接的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쳐왔다고 본다. 다음 그 몇가지 問題點만을 보기로 한다.

- 南北韓의 經濟對決에로의 移行 -

北韓(金日成)은 1961年에서 1966年에 이르기까지 蘇聯을 攻擊하면서 中共의 理念과 鬪爭目標에 「一方的」으로 가담함으로써 타격을 받은것은 1960年8月에 決定하였던 北韓의 「經濟7個年計劃」이었다. 事實上 1963年 休戰後 本格的인 戰爭復旧事業과 經濟的出發을 그 經濟計劃의 內容으로 하고 있었다. 그것 段階에서 消費財(最小限의)와 後半에서 重工業에 重點을 두면서 工業과 農業의 近代化의 기초를 마련하려 했던 經濟計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필수적인 要素는 「蘇聯의 援助」였다. 蘇聯은

1961年 이 計劃에 대한 支援을 約束함으로써 1961~1967年間に 걸쳐 蘇聯의 北韓「7個年 經濟計劃」을 支援하는것을 目的으로 하는 貿易 및 經濟協力協定에 調印하였던 것이기도 하였다.

이 北韓의 「經濟7個年計劃」이 失敗한 큰 理由는 主로 北方三角關係의 파괴의 主因이었던 中·蘇紛爭의 激化에서 北韓이 「후루시초프」對 「모택동」간의 理念紛爭에서 公開的으로 中共側에 가담함으로써 었으며 이에 蘇聯이 「經濟7個年計劃」에 대한 支援約束을 撤回한에서 었다.

勿論 蘇聯 支援約束의 撤回 또는 約束不履行을 經濟的側面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1963年 「모스크바」는 500台以上の 蘇製「제트」機의 部品과 「개소린」供給까지 중단된것이어서 結局 戰爭能力에까지 그 影響이 미치게 된것이다.

北韓은 이 「經濟7個年計劃」을 北韓답지 못하게 3個年을 延長하여 1970年에야 겨우 完結할 수 있었다.

1970年代에 들어선 現時点에서 北韓은 北韓의 經濟計劃과 軍事的自立에 기초가 될 「經濟6個年計劃」(1971-1976年)에 이미 突入하고 있다. 北韓은 1960年代에서 中·蘇紛爭에 어느 一方에 政治的 가담을 함으로써 經濟計劃과 軍事計劃을 망친 過誤를 범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이 범한 「도그마」的 過誤에는 1960年代에 經濟的 失敗에 比하여 南韓은 1960年에 豫想할 수 없었던 經濟的飛躍을 認識하게 된것을 응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中·蘇紛爭에서 「政治的關心」이 결코 北韓의 地位를 上昇시켜준 것은 아니며 1960年代의 北韓政策의 모험적性格은 그 主失敗의 原因이 「政治的關心」에서 연유한것이였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南北韓의 經濟計劃이 對決할듯한 構造를 띄고있음은 明白하다. 南韓의 「第3次5個年計劃」과 北의 「經濟6個年計劃」의 對決이라는 点이다. 여기에서 中·蘇紛爭과 關聯된 緊要한 点은 北韓이 北方三角關係에서 「政治的凍結」이 經濟對決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北韓의 中·蘇紛爭에 對한 「政治的關心」의 포기는 곧 北韓과의 「政治的對決」보다는 「經濟的對決」에 그 關心이 南北韓國係에서 「經濟的關心」으로 移行하면서 「經濟的對決」의 패턴 構成이 될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南北關係의 經濟의 性格으로의 變化는 다음 論하는 「平和共存」 또는 「38線의 軍事的凍結」 또는 現在 進行되고 있는 「南北調節委員會」라는 「메카니즘」이 이를 더욱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中·蘇紛爭과 韓半島의 「現狀凍結」 -

美·中共 및 美·蘇頂上會談을 通하여 韓半島의 「現狀凍結」政策이 具體化되고 있다. 北韓은 中·蘇紛爭을 通한 中·蘇關係의 如何에 不拘하고서 앞으로 中·蘇에 對한 經濟的 政治的 依存性없이는 北韓은 存立할 수 없다는 點은 여전하다.

北韓은 中·蘇紛爭과는 關係없이 中·蘇兩國이 모두 美國과의 競爭的인 妥協政策에서 中·蘇論爭의 起源이었던 「平和共存」論爭은 살아졌으며 金日成의 「韓半島의 軍事統一」 또는 「解放」이라는 理念的支柱가 기우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重要한 點은 北韓이 필수적으로 中·蘇兩國 모두에 依存않으면 그 存立이 위태로워진다는에서 北韓도 中·蘇의 「平和共存」理論과 實際的展開을 受諾할 수 밖에 없다는 點이다.

中·蘇紛爭이 노골화하며 北韓이 中共에 기우러질때인 1963년에 蘇聯은 軍事援助까지 단호히 北韓에 拒否한 事實은 그 依存性의 냉엄한 側面을 말해준다. 가령 北韓이 「政治的自主」가 可能하더라도 最小限 中·蘇 어느한쪽의 軍事的·經濟的援助없이는 現狀態로 보아서 北韓이 말하는 軍事的自衛나 經濟的自立은 極히 困難하다고 보아야한다는 點을 金日成 스스로가 잘알고있으며 여기에서 一般的이나마 「38線의 現狀凍結」로 나갈수 밖에 없으며 現在 韓半島를 支配하고있는 「現狀凍結」로 이어져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北韓의 「自主路線」와 南北韓의 民族主義의 性格-

北韓의 「自主路線」은 1966年 8月 12日의 「노동신문」사설인 「自主성을 옹호하자」에서부터 발단되고 있다. 「自主路線」의 動機는 어디까지나 中蘇紛争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避하는데서 나온 것이며 中蘇에 대하여 一定한 距離를 維持하면서 北韓의 獨立의 性格을 維持하려는데서 나온 것이다.

北韓의 「自主路線」은 過去에 있어서 中蘇에 대하여 「完全한 依存」에서의 이탈을 말해주는 것이다. 金日成이 스스로가 「完全한 依存性」을 말해 주듯이 国民學校의 教室에 「마야콥스키」의 사진뿐이지 우리의 것은 없다는데서 엿볼수 있다.

中蘇紛争이 金日成集團으로 하여금 「自主路線」 또는 朝鮮民族에 대한 自覺을 結局 強要당한 셈이라고 말할수 있다. 金日成體制가 北韓에 勢力부식時期로부터 韓國動亂體制에서 完全한 中蘇依存化 하였었다는 점을 생각할때 그리 신기한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自然 金日成은 自己의 「自主路線」을 民族主義의 性格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看過할수는 없다.

韓國動亂體制가 持續된 오늘날까지 北韓은 韓半島統一을 中蘇의 支援(依存)으로 軍事統一을 企圖하였으나 中蘇紛争에서 起因한 依存탈피의 強要는 北韓이 民族問題라는 角度에서 「对内化」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韓半島에서 두개의 엄격한 「民族主義」概念이 介入되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 北朝鮮의 共產「民族主義」와 南韓의 傳統的인 「民族主義」간의 問題로 民族主義의 概念의 分化가 運行되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展開는 南北現狀凍結을 加速化 시키고 있는 要素로 表現되고 있다.

이를 相異한 立場에서 克服하여 보려하는 것과 同時에 現狀凍結이란 二重的 機能을 하고 있는 南北調節委員會」라는 「메카니즘」으로 發展한 것이다.

- 北韓과 日本과의 關係 -

北韓은 中蘇紛争과 이에 起因한 中蘇兩國의 對北韓政策의 變化에서 그 依存의 限界가 있음을 自覺하고 있다.

北韓의 政治的目標이자 經濟的目標에서 特히 經濟的特性은 앞으로의 目標가 첫째 「軍需産業의 完成」 둘째 「消費産業의 發展」이라는 基本目標가 있다고 볼수 있다.

「軍需産業의 完成」에는 高度의 技術이나 材料가 必要하다. 蘇聯이 韓半島에서 北韓의 모험을 기피하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는 以上 高度의 軍需産業에 필요한 技術과 材料를 供給하리라고는 豫想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美·中共間의 聲明에서 밝힌 「韓半島의 緊張緩和」約束에 따라서 中共이 「軍需産業의 完成」에 支援을 할리 만무하다. 또 能力도 여유도 中共에서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消費産業의 發展」이라는 点에서 보면 現在 北韓이 南韓과의 經濟對立에서 最小限 充足시켜야할 「消費産業」이 필요하다. 그러나 「消費産業」의 支援은 中蘇가 할수 있는 限界를 經濟構造上 벗어나는 일이다.

北韓은 中蘇紛争의 依存限界를 特히 經濟的側面에서 日本에서 그

突破口를 찾아 보려고 하고 있다고 본다.

日本の 資本과 技術은 事實上 北韓의 두가지 目標을 充足시켜줄 수 있는 最善의 対象인것이다. 中蘇依存의 限界에서 起因한 北韓의 対日接近은 最近 金日成의 日本人事들과의 會談에서 역역히 찾아볼 수 있다.

- 中蘇와 새로운 南北關係 -

中蘇紛争에서 完全한 対立은 可能한限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를 中共이나 蘇聯이 바라고 있다는点에서 北韓은 새로운 南北關係인 「南北調節委員會」라는 「메카니즘」을 통한 韓半島에서의 軍事의 対決의 「安全弁」(Safety valve)을 形成하며 組織化 하는데 中蘇는 最小限 反對않고 있으며 이를 事實上 外交的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四大国保障이라해도 좋고 中蘇의 一致点은 中蘇兩國의 紛争国境아닌 다른 国境에서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다는 点일 것이다.

이점에서 北韓·蘇聯·中共間의 三角關係에서 北韓이 最終的으로 依存할 勢力이 蘇聯이나 中共이나 하는点是 南北韓關係進展에 큰 差가 없다고 볼수 있다. 다만 구태여 가려야 한다면 北韓은 確實히 現時点에서는 軍事的인 側面에서 蘇聯의 北韓軍에 對한 相當한 兵站的補給없이는 지탱할수 없으며 美國의 核抑止力에서도 蘇聯이 最終的인 北韓의 依存国이 될것이다. 그러나 中共이 항공기의 多量生産과 어느程度의 核開發이 더 進展한다면 北韓의 蘇聯依存度가 흔들릴것임은 말할필요 없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中蘇의 韓半島의 現狀凍結이란 政策과 北韓

에 대한 壓力에서 南北關係를 無事히 이끌어가며 韓國과의 關係를 「現狀維持」해야할 立場이라고 본다. 또한 北韓은 最小限 經濟計劃의 進展을 위하여서도 南北關係의 實質的인 進展은 모르나 最小限 「現狀」(Status quo)을 打破할 政策은 쓰지않으리라 豫測할수 있다.

結 論

中蘇紛爭에 대한 北韓의 反應과 이어 起因하는 南北關係를 展望하였다. 事實上 中蘇紛爭에서 北韓의 「딜레머」는 어느 意味에서 韓半島의 政治的·歷史的 「딜레머」에 屬하며 비록 共產體制라는 政治體制의 테두리에서도 이 本質的인 韓半島의 歷史的 「딜레머」를 北韓體制라고 하여서 피하거나 벗어날수는 없었다고 본다.

韓半島의 政治的依存성과 獨立性은 歷史的인 것이며 韓半島의 政治展開에서 本質的인 것이다.

이렇게 볼때 앞으로 北韓이 中蘇紛爭에서 起因한 「自主路線」과 「主体」思想을 어떻게 또 어떤 方向으로 展開할것인가에 事實上 南北韓關係의 焦點이 놓여있다고 보아도 過言이 아니라고 본다.

中蘇紛爭에 対応하기 위하여서 또는 論理的으로 自覺한 「主体」나 「自主路線」은 그 「主体」를 通하여 「獨立性」을 維持하면서 「프에브로」事態때 모양 韓半島를 「恣意的인」 軍事的緊張으로 몰아갈수도 있으며 現在와 같이 南北關係를 援用하는데 「主体」思想이 使用될수도 있다는에서 兩面性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北 韓 의 对 南 姿 勢

- 仮定的 豫測을 위한 試論 -

高 麗 大 学 校

教 授 金 瓊 元

北韓의 對南姿勢

- 假定的 豫測을 위한 試論 -

金 瓊 元

歷史는 矛盾關係의 展開過程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民族의 歷史야말로 矛盾과 예측하기 어려운 비약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눈물겨운 日帝의 쇠사슬에서 해어나 光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前에 國土分斷이라는 가슴 아픈 새로운 狀況에 놓이게 되었으며 드디어 同族相殘의 悲劇까지 겪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또 하나의 歷史的 轉換點에 놓여 있다. 지나간 4半世紀를 通하여 斷切되었던 對話의 문이 거의 충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얼마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可能性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轉換의 궁극적인 方向에 대해서는 아무도 自信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다. 南北關係를 決定하는 要素는 너무도 多様하며 流動的이다.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南北關係에 가장 決定的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要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北韓의 對南姿勢와 態度, 그리고 行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歷史的 轉換의 方向을 올바르게 判斷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北韓이 앞으로 取하게 될 對南姿勢의 方向부터 예측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러나 우선 北韓의 態度나 行動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點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作業이 어려운 理由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지적

될 수 있다.

첫째로 北韓에 대한 資料가 극히 制限되어 있다. 모름지기 世界의 다른 어느 社會보다도 北韓에 對한 資料나 情報가 가장 制限되어 있지 않은가 한다. 그리고 우리가 現在 가지고 있는 資料는 대체로 北韓當局이 發表한 자료이기 때문에, 北韓體制의 성격으로 보아 그들의 意識的인 政策的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무릇 政策이란 單純한 個人的 合理的인 目的 追求의 過程에서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社會의 政治行政體制의 복잡한 構造內에서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相互 競爭的인 立場에 설 수 밖에 없는 勢力者들 사이에 一種의 힘의 均衡이 成立됨으로써, 그러한 競爭의 過程과 勢力均衡의 결과로 어떤 特定한 政策이 채택되는 것이라면, (註: 1) 北韓의 경우에 있어서도, 北韓政治行政體制의 内部構造와 過程을 자세하게 分析하지 않고서는 그 政策의 決定過程이나 內容을 자신있게 論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實際로 적어도 筆者 자신은 北韓의 内部構造와 政治過程에 대해서 자세한 情報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北韓의 政策이나 行動에 對해서 극히 原理的인 分析以上은 試圖할 수 없음을 告白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北韓의 未來態度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根本的인 方法論的 問題에 부닥치게 된다.

솔직하게 말해서 現在까지의 社會科學研究方法을 가지고는 未來를 예측한다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未來學에 있어서도 가장 널리 使用되고 있는 方法은

「놀라움 없는 예측」(Surprise-free projection)으로서, 重要な 要素들은 過去와 같은 速度로 그리고 同一한 方向으로 進行되어 간다고 하는 가정下에 未來의 全體的인 「像」을 그려보는 것인데 (註: 2) 周知하다싶이 南北關係는 매우 劇的인 轉換點에 놓여있는 만큼 그러한 未來學的 方法이 어느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을런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本質的으로 未來學은 歷史的 連續性을 前提하고 있다면, 南北韓關係는 오히려 歷史에 있어서의 비약을 實証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北韓이 어떤 對南姿勢를 取할 것인가를 論함에 있어서 過去를 基準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물론 過去를 參考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未來가 過去의 기계적인 연속적 발전이라고는 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뜻에서 여기서는 北韓의 앞으로의 態度를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基本的인 理論的 假정을 前提로 하고자 한다. 실제로 그러한 前提가 어느정도 타당한 것인지는 立証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分析과 예측이 正確하려면 어떤 前提가 必要한가 하는 點만은 分明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本論文에서는 北韓의 政策作成 過程은 合理的이라고 가정한다. (註: 3) 다시 말하면, 北韓政治行政體制의 内部構造에 따르는 特殊性이나 競爭過程은 편의상 無視하고, 마치 北韓은 自然人和 같은 行動者이며, 決定作成은 合理的으로 進行된다고 가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合理的이라는 概念은 目的意識의 實質的 內容에 관한 合理性을 意味하는 대신에 주어진 目的을 最小限 代價로 성취한다는 이른바 手段的 合理性을 뜻한다.

둘째로 北韓이 對南關係에서 追求하는 目的은 絶對的인 것이 아니라 相對的인 것이며, 주어진 環境과 北韓의 能力에 따라 意識的으로 조정된다고 가정한다. 根本的으로 北韓은 對南關係에 있어서 最大의 目的과 最小의 目的을 追求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前者를 共産化 統一이라고 할 수 있다면 後者는 北韓體制의 維持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이 두가지의 基本的인 目的以外에도 中間的인 目的으로서 北韓地位의 向上이라든가 南韓의 相對的 弱화라고 하든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根本的으로는 이러한 目的들은 上述한 바와 같은 最大 最小目的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여기서 強調하고자 하는 點은 北韓의 對南目的은 오로지 하나로서만 固定된 絶對的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정도 環境과 能力에 依하여 영향받는 相對的이라는 前提下에 北韓의 앞으로의 態度를 예측해 보자는 點이다.

두 달할 것도 없이 以上과 같은 前提에 대해서 相當한 論議의 余地가 있는 것이 事實이다. 特히 北韓의 理念的 性格을 감안할 때 北韓의 目的은 相對的이며, 그 政策作成過程은 合理的이라고 한다면, 크게 오해를 받을 우려조차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具體的인 實証없이 다만 未來에 對한 예측을 위하여 必要한 가정을 채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理論的으로 必要하다는 사실은, 萬一 그러한 가정없이 北韓의 未來行爲를 예측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떤 結論이 可能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萬一 北韓을 非合理的이라고 가정한다면 韓半島의 內外情勢가 어떻게 變動되건 北韓의 行爲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또한 北韓의 目的은 絶對的이라면, 그 行爲는 過去나 未來나 마찬가지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未來에 對한 예측, 또는 政策에 對한 體系的인 分析은 必要없어진다.

왜냐하면 恒常 同一한 結論만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實際로 北韓이 어느정도 合理的인가 하는 程度의 問題가 있는 것은 認定하지만, 우선 未來에 대한 分析과 예측을 위하여 편의상 合理性과 相對性을 前提로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北韓이 合理的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70年代의 周邊情勢에 對한 北韓의 認識 (Perception) 은 어떤 것일까?

北韓의 立場에서 생각한다면, 70年代의 國際環境은 共產圈의 兩 大 支柱라고 할 수 있는 蘇聯과 中共이 同時에 西方과의 接近을 追求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劃期的인 事實로서 定義된다고 할 수 있다.

周知하다싶이 1950年代는 西方陣營에 對한 中蘇間의 公同路線과 이에 따르는 共產圈의 内部的 結束의 時期였다. 이른바 「資本主義·帝國主義」陣營에 對한 非妥協的인 敵對姿勢만을 取하는 것이 모든 共產國家들의 거의 例外없는 唯一한 對外政策의 基本路線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共產圈의 一元的 内部構造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후르스초푸의 이른바 「非스탈린化」運動에 따르는 蘇聯과 東歐衛星 國家 및 其他 共產國家와는 關係를 再定義하지 않을 수 없는 必然性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中共과 蘇聯의 關係가 惡化된 것은 中蘇經濟關係에서 起因한 것이 事實이지만 (註; 4) 根本적으로 蘇聯의 内部的 体制의 變質과 이에 따르는 蘇聯의 對西方姿勢의 非모한 變化와 直結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체로 60年代는 中蘇關係가 계속 惡化되면서 特히 對

西方戰略問題에 있어서 모스크바와 北京이 相反하는 立場을 取하게 된 것이 國際政治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現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特別히 1962年의 쿠바核미사일危機 以後에 平和共存原則을 對美關係의 基本前提로 받아 드리게 되었고 1963年의 核武器實驗 制限協定에서 보논바와 같이 美國과의 部分的 協力도 不辭하게 되었다.

이에 反하여 中共은 共產圈內에서 對蘇競爭의 一環으로 蘇聯의 對西方姿勢를 修正主義라고 공격하는 立場을 取함으로써 結果적으로 中共 자신은 西方側에 대하여 소위 革命的인 理念的 姿勢를 取하게 되었다. 물론 中共은 對西方關係에 있어서 「대만」問題와 같은 直接的인 利害의 相衝이 있었기 때문에 緊張狀態를 계속 堅持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여하튼 結果적으로 본다면, 60年代는 中共과 蘇聯이 西方側에 대하여 相反하는 立場을 取하게 된 것이 가장 重要한 事實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은 60年代 初期에는 中共의 革命的 路線을 지지했으나, 60年代 後半期로 들어 오면서 蘇聯의 經濟的 및 軍事的인 支援의 必要性으로 因하여 對蘇關係의 改善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比較적 복잡한 情勢에서 北韓 자신의 機會主義的인 外交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理念的으로는 이른바 「主体」를 부르짖게 된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主体的 姿勢라고 하는 것은 50年代의 確固한 共產圈의 内部的 結束이 깨어진 말하자면 北韓 으로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새로운 情勢에 능동적으로 適應하기 위하여 取한 戰略的 概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同時에 中蘇의 對西方政策에 있어서의 差異는 結果적으로 北韓에게 一種의 有利한 立場을 提供해 준것도 事實이다. 왜냐하면 北韓은 中共과 蘇聯의 競争을 利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北韓은 一面 蘇聯의 物質的 支援을 계속 確保하면서 同時에 中共으로부터는 對西方革命路線에 대한 理念的 및 政治的 支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70年代의 狀況은 60年代에 比하면 根本적으로 變質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中共과 蘇聯은 過去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對西方接近을 위한 競争을 하는 立場에 놓여 있다.

이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美·中共 接近에서 始作된다.

그러나 美國과의 接近을 모색하게 된 中共의 根本적인 動機 가운데는 蘇聯과의 關係가 武力衝突의 可能性 조차도 배제할 수 없는 狀況에서 美國과 接近함으로써 蘇聯의 위협에 對備하려는 戰略的 目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50年代에 蘇聯과 中共의 對西方姿勢가 一致했던 것은 兩國의 利害關係가 一致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70年代에는 오히려 中蘇間의 利害關係가 相反되기 때문에 對西方關係에 있어서 內容적으로 同一한 路線을 取하고 있다는 「아이로니」를 發見할 수 있다.

70年代의 이와 같은 狀況은 北韓의 立場을 安易하게 만들면서 同時에 北韓의 政治的 野心에 客觀的 限界를 意味하게 된다.

北韓의 立場이 安易하게 된다는 것은, 中央과 소련이 同時에 對西方接近을 基本政策으로 採択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對西方姿勢도 거의 必然的으로 接近을 환영하는, 비교적 온건한 立場으로 表現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意味한다. 이러한 可能性의 界限이 北韓의 立場에서 보았을때 「安易」라는 表現으로 理解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對西方姿勢 問題에 있어서의 共產圈內的 理念的 對立으로 因한 매우 복잡한 曲芸師的인 外交는 不必要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北韓의 外交問題가 비교적 安易하게 또는 단순하게 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同時에 中共과 蘇聯이 同一하게 對西方接近을 追求하고 있다는 事實은 北韓의 對外關係에 있어서 北韓이 追求할 수 있는 目的들의 限界를 크게 制約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적어도 北京과 모스크바가 國際政治에 있어서 現狀을 維持한다는 前提下에 西方側과의 緊張을 緩和한다는 基本方向에 同意하고 있다는 事實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蘇聯은 戰略武器制限協定에 調印함으로써 現狀維持의 原則을 상징적으로 肯定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 있어서 東西兩獨間的 基本關係條約을 바탕으로 하는 全歐州安保會議을 위한 헬싱키豫備會談과 「제네바」에서 進行되고 있는 戰略武器制限 第二期會談(SALT II), 그리고 앞으로 열리게 될 東西兵力의 均衡있는 相互減縮(Mutual and Balanced Forces Reduction : MBFR)을 위한 安保會議等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第二次大戰 以後 처음으로 本格的으로 平和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協商의 作業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一聯의 現狀定義를 위한 努力은 美國의 協力없이는 不可能한 것으로서 蘇聯은 앞으로도 계속 美國과의 關係를 維持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中共의 立場도 對美關係에 있어서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미 中共의 對蘇關係를 지적했거니와, 中共은 앞으로 蘇聯과 50年代의 關係를 부활시키든가 아니면 國際的 孤立을 願하지 않는 限 對美接近을 拋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中共은 어느 정도까지 亞細亞 地域에 있어서의 現狀을 對美關係의 前提條件으로 받아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分明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問題에 있어서도 中共은 現狀變動이 先行되지 않은 가운데 對美關係의 改善을 받아드린 것을 보면 理念的 立場과는 별로 相關없이 現實的으로는 對美關係의 戰略的 必要性 때문에 亞細亞에서의 現狀打破를 고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와 같이 蘇聯과 中共이 同時에 現狀維持를 前提로 하는 對美接近政策을 通하여 西方側과의 緊張緩和를 追求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 北韓은 現狀維持 以上の 어떤 目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中共이나 蘇聯의 支援없이 自力으로 試圖할 수 밖에 없는 立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勿論 北韓에 對한 蘇聯과 中共의 支援이 70年代에 中斷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對北韓 支援의

方向과 限界는 兩大 共產國의 「레망뜨」政策의 要請에 依하여 決定 될 것이라는 것이다.

中共과 蘇聯의 共產盟邦에 대한 支援度의 限界는 實際로 越盟에 대한 態度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特히 「닉슨」美國大統領이 「모스크바」訪問에 앞서서 5月 8日 越盟港灣封鎖措置를 取했을때, 中共과 蘇聯은 具體的인 行動을 통한 아무런 反應도 보여 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中共과 蘇聯이 모두 對美關係를 그만큼 重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事實을 立証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노이」政權에게는 그들의 友邦의 能力의 限界와 實利主義的 態度를 들어 낸 충격적인 經驗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닉슨 쇼크」보다도 더 충격적인 「브레즈네프 쇼크」였을 것이 아닌가 한다.

蘇聯은 中東에서도 아랍國家들을 支援하고 있지만 역시 그것은 中東地域에 있어서의 「스테터스 쿠어」를 파괴하지 않는 限度內에서 局限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에집트」가 蘇聯의 軍事援助에 대하여 不滿을 표시하게 된 가장 큰 理由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은 合理的이라는 우리의 가정이 正確한 것이라면, 「평양」은 中共과 蘇聯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限界를 잘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對南政策에 있어서 계속 最大의 目的을 追求하기로 決定한다면 結局 그들은 自力에만 依存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北韓은 現狀況 下에서 自力으로 그들의 最大의 目的 즉

共産化 統一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인가? 北韓의 過去 行動方式을 보면 그들의 對南工作은 恒常 客觀的 條件의 成熟如何에 대하여 매우 注意깊은 態度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1950年의 失敗 以後에 그들은 힘의 使用에 있어서 客觀的 條件의 成熟을 實驗的으로 알아 보기 위하여 試行的인 方法을 使用하고 있다.(註: 5)

그리고 1960年度 後半期에 北韓은 對南工作을 積極化함으로서 武力挑發의 可能性과 특히 이른바 「南朝鮮革命」을 促進시킬 수 있는 客觀的 條件에 대하여 試驗할 수 있는 機會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北韓이 1960年代 後半期의 經驗에서 어떤 結論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自信있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合理的이라는 假定下에서 생각한다면, 北韓은 決코 自力에 依存한 全面戰爭 또는 이른바 「南朝鮮革命」을 통한 共産化 統一이 突現 가능한 客觀的 條件이 성숙되어 있다는 結論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北韓이 南北關係에 있어서 그들의 窮極的인 目的을 拋棄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目的을 實現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을 造成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前提條件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判斷했을 것이다.

具體的으로 北韓은 中共과 蘇聯의 直接的인 支援에 依存하지 않고 「主體的」으로 「南朝鮮」과의 對決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南朝鮮」도 美國이나 其他 友邦의 直接的인 支援을 기대할 수 없는 客觀的 狀況을 造成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70年代에 北韓의 對南關係에 있어서의 가장 具體的인 戰術的 目的은 駐韓美軍의 全面撤収와 其他 美國의 對韓 援助의 沮止 및 日本의 對韓安保關係 樹立 可能性의 防止等이라고 할 수 있다.

美軍撤収 및 이른바 外部勢力의 排除는 北韓이 過去에도 一貫되게 主張해 온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70年代의 北韓의 對南政策을 論하면서 美軍撤収와 外部勢力의 除去를 北韓의 戰術的 目的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北韓의 對南政策에 있어서 過去나 오늘이나 差異가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後述하겠지만, 同一한 目的을 追求하는데 있어서도 周邊情勢의 變動으로 因하여 北韓의 姿勢에는 過去와 比하여 상당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北韓은 南韓으로 부터 소위 「外勢」를 제거함과 同時에 南韓社會內에서 그들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보다 有利한 環境이 造成될 수 있도록 이른바 「南朝鮮革命」을 可能토록 하는 構造的 變化를 誘導하려고 努力할 것이다. 勿論 北韓은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을 概念的으로 区分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實質的으로 前者는 반드시 後者를 國時에 초래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後者를 성취하기 위하여 前者를 實現하려고 努力할 것이라는 것은 明白하다.

具體的으로 「南朝鮮革命」은 「南朝鮮人民」 스스로에 依한 「美帝」와 地主, 資本家들을 중심으로 하는 高位權力層에 대한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이라고 定義되고 있으며, 「南朝鮮革命」이 可能하게 되기 위해서는 南韓에서 이른바 「革命勢力」이 成長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러한 反體制的 勢力을 助長하기 위해서는 過去에 親共要素의 活動과 조직을 억제하고 있던 여러가지 制約條件이 解消되어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北韓의 對南政策의 戰術的 目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北韓이 以上과 같은 두가지 具體的인 目的에 對南努力을 集中하게 된 動機를 國際情勢의 變動에서 찾았거니와, 이제 北韓이 그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어떠한 具體的인 對南姿勢를 取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決定的인 要因은 70年代의 國際情勢에서 發見할 수 있을 것 같다.

周知하다시피 南韓으로 부터 「外勢」를 除去하는데 있어서, 北韓은 美國의 對亞細亞政策의 轉換傾向을 가장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닉슨·독트린」에 따르는 美國의 海外負擔減少 努力을 利用하는 것이 北韓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가장 合理的이라는 結論에 도달했을 可能性이 甚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美國의 海外負擔減少의 基本前提는 共產主義의 위협이 過去에 비하여 작아졌으며, 現實적으로 緊張緩和가 可能하다는 美國政府의 해석입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北韓은 美國의 이와 같은 前提條件을 實証해 주는, 또는 實証하는 印象을 주는 姿勢를 取하는 것이 合理的이라는 判斷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結果적으로 北韓은 對南姿勢에 있어서 緊張緩和를 追求하고 있다는 印象을 造成하려고 努力하게 된다. 이런 北韓의 判斷 可能性과 관련하여 이른바 「許談의 8個條項」이 「닉슨·독트린」發表 直後에 發表되었다는 사실은 決코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日本問題에 있어서도 北韓은 緊張緩和를 標榜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라고 判斷한 것 같다. 왜냐하면 美國을 代理하여 日本이 韓國의 安保에 대하여 積極的인 立場을 取할 可能性은 「닉슨·독트린」發表를 先行한 「닉슨·사토」성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日本이 實際로 그러한 政策을 채택할 動機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이 緩和되고 있다는 點을 強調하는 것이 必要하기 때문

이다.

北韓의 두번째의 目的, 即 南韓에서의 「革命勢力」을 造成하기 위한 그들의 立場에서 否定的 障礙物이라고 생각되는 諸要素들을 除去하기 위해서도 北韓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緊張緩和政策이 가장 合理的이라는 結論에 도달했을 可能性이 가장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緊張이 緩和된 분위기에서 韓國이 계속 그러한 制度를 維持한다는 것은 國內外的으로 說得力이 적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왜 北韓이 70年代에 對南姿勢를 「데탕트」체제로 規定하게 되었는가를 理解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提起하지 않을 수 없는 問題는, 北韓이 上述한 바와 같이 그들 最大의 目的을 성취하기 위한 客觀的 條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緊張緩和의 姿勢를 取한다고 할 수 있다면, 앞으로 北韓의 戰術的 目的이 어느 程度 達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戰略的 目的은 實現不可能한 事實에 부닥치게 될 때 北韓은 어떠한 反應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在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美軍의 철수와 兩韓制度의 部分的 變化가 万一 이루어진 後에도 韓國 自體의 「힘」때문에 全面戰爭은 非合理的인 것이 分明하고 또 계속 「南朝鮮革命」을 위한 「革命勢力」은 成長은 커녕 出現하지도 않는다면, 北韓은 緊張緩和政策이 失敗한 것으로 보고, 어떤 다른 보다 強硬하고도 過激한 行動 또는 路線을 取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이것이 바로 1973年 以後의 南北關係를 決

定지위 중 가장 重要한 問題가 아닌가 한다.

물론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의 内部構造에 대한 보다 자세한 情報을 갖고 있지 못한 筆者로서는 이 問題에 대하여 自信있는 答을 提示할 수 없다. 여기서 可能한 것은 條件附 對答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必要한 條件은 역시 上述한 바와 같이 北韓의 政策過程은 合理的이며 北韓의 目的은 相對的이고 1973年 以後의 國際情勢와 韓國의 實情을 포함하는 客觀的 條件은 北韓이 最大의 目的을 實現할 수 없도록 安定化되어 있다고 하는 假定이다.

그런 경우에 北韓에게는 實際로 두가지의 可能性밖에 없을 것 같다.

첫째는 그들의 궁극적 目的의 實現을 계속 연기하면서도 그러한 目的을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는 理念的 立場을 固守하는 것이다. 北韓이 이러한 姿勢를 取하게 되면 그들은 南北間의 交流와 接觸을 最大限으로 實現해야 한다는 原則的 立場을 계속 내세울 것이며 그들의 이른바 「聯邦制」에 대한 提案도 계속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主張과 要求들은 民族統一이라고 하는 全體的인 理念的 命名의 테두리 속에서 正當化될 것이다.

둘째로 北韓은 궁극적인 共產化 統一의 目的 自体를 實質적으로 포기하고 (물론 公公然하게 그것을 宣稱할 수는 없겠지만) 이른바 最小限의 目的, 즉 北韓의 地位 向上과 그들 體制의 安保 및 經濟發展 등의 實利만을 追求하는 現實主義的 立場을 取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姿勢는 결국 「두개의 韓國」 또는 「單一韓民族內的 두개의 政治體制」라는 概念으로 規定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前提下에서의 南北交流 및 接觸은 比較的 制限된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내다 볼 수 있다.

실제로 北韓은 주어진 條件下에서 以上과 같은 두가지 可能性 가운데 그 어느 것을 選擇할런지는 아직 分明하지 않다. 1971年 南北韓間에 接觸이 始作된 以後 北韓은 적어도 前者의 可能性은 提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後者の 可能性은 아직 表面的으로 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본다면 北韓이 以上の 두가지 可能性 가운데 그 어느편을 沉하든지 南北關係의 展望에 있어서 根本的인 差異는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本質的으로 北韓은 적어도 주어진 情勢下에서는 緊張緩和를 標榜하는 姿勢를 取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現狀維持의 前提條件에 대해서 어느 정도 肯定的인가 하는 問題에 있어서만 정도의 差異가 있을 것으로 본다.

結論的으로 우리는 앞으로 北韓이 取하리라고 예상되는 對南姿勢를 다음과 같이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對南關係에 있어서 北韓의 궁극적인 目的은 共產化 統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궁극적 目的 자체를 포기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로 北韓은 그들의 궁극적 目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北韓 自體의 힘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는 現實을 認識하고 있다.

이것은 70年代의 國際情勢, 특히 北韓의 兩大共產盟邦들의 對西方 接近政策을 보면 不可避한 現實임을 알 수 있다.

셋째로 北韓은 그들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對南關係에 있어서 緊張緩和를 標榜하는 姿勢를 取한다. 그 戰略的 底意는 美軍의 철수와 이른바 「南朝鮮革命勢力」의 成長을 위한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넷째로 緊張緩和의 姿勢를 取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戰略的 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될 때, 北韓은 주어진 客觀的 環境의 不可抗力的인 制約을 意識하고 緊張緩和의 姿勢를 계속하기로 決心한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現狀維持 및 固定을 意味할 것인지 또는 궁극적인 現狀變動을 계속 追求한다는 前提下에 잠정적인 현상유지 상태를 받아 드리게 되는 것인지는 確實하지 않다.

다섯째로 北韓의 對南姿勢는 그 具體的인 內容이 어떻게 나타날런지는 分明하지 않지만, 주어진 周邊情勢下에서 北韓은 緊張緩和를 표방하는 姿勢를 取하지 않을 수 없는 以上 南韓과의 接觸, 交流 및 協商에 대해서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態度를 取할 것이다. 實際로 그러한 接觸과 協商이 어느정도 成功的으로 進行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萬一本論文에서 지적한 假定들이 妥當한 것이라면 成功의 確率は 상당히 높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우리의 假定들의 妥當性에 대해서 完全한 自信을 갖기는 어렵다. 그러한 假定들을 채택한 理由는 그러한 가정들이 타당하는 實証이 있어서가 아니라 分析的으로 그러한 假定들이 必要해서라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마찬 가지다. 다만 北

韓의 過去行為形態를 볼때 우리가 채택한 假定들이 妥當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問題를 提起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北韓의 對南姿勢를 決定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要因은 北韓의 對南態度와 姿勢에 對한 韓國의 反應 및 對北政策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特히 北韓의 德壤뜨政策의 戰略的 底意가 韓國의 國際的 孤立化와 이른바 「南朝鮮 革命勢力」의 造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그들의 戰略的 目的이 實現 不可能하다는 前提下에 北韓의 緊張緩和姿勢의 不可避한 持續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結局 그러한 戰略的 目的을 좌절시킬 수 있는 韓國의 能力이 北韓의 對南姿勢를 決定하는 核心的인 關鍵이 된다고 해도 決코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姿勢 問題는 氣象學的으로 豫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日氣豫報란 다른 모든 自然科學的인 예측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主体的인 價值와 能力과는 相關 없이 客觀的으로 可能한 것이지만, 北韓의 姿勢와 行動은 다른 社會現象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主体的 關心과 直結되어 있기 때문에 中立的인 科學的 豫測이 不可能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社會現象의 主觀的 側面이야말로 能動的인 政策의 可能性을 保障해 주는 가장 本質的인 人間條件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앞으로 兩北韓關係가 어떠한 方向으로 展開될 것인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客觀的인 科學的 豫測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보다는 重要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南北關係를 어떤 方向으로 進行시키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하는 當爲의 問題에 대한 責任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歷史에는 保障이란 없으며
오로지 不斷한 創造에의 挑戰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註 >

- (1) Graham Allison and Morton Halperin, "Buraucratic Politics"
World Politics, Supplement, Fall, 1972
- (2) Herman Kahn and Anthony J. Wiener
The Year 2000: A Framework for Speculation on the Next
Thirty-Three Years, New York, 1967, pp.7-8
- (3) Sidney Verba, "Assumptions of Rationality and Non-
Rationality in Model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
Klaus Krorr & Sidney Verba (eds.) The International
System: Theoretical Essays, Princeton, 1961, pp. 93-117
- (4) Lung Yun, "My Ideological Review" Jen Min Jih Pao,
July 14, 1957, as Translated in Current Background
(Hong Kong: U.S. Consulate General) No. 470 (July 26,
1957)
- (5) 金昌順 '全面戰爭에 의한 統一試圖 可能性' 및 金南植
'北韓의 對南工作本意', 韓國統一의 理論的基礎,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共產圈研究室編 1972年 發行

